

경제성 없는 공기관 사업...혈세 샌다

최근 3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84%가 면제
정부 예산사업 외 법적규제 미흡 '묻지마 사업' 부추겨
조사결과 근거자료도 비공개 분류 공정성 검증 난항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높은 면제율로 인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약화와 복지확대에 따른 담뱃세·지방세 인상을 두고 '서민증세'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사업성을 사전 검토하는 예비조사가 부실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정부뿐만 아니라 공기관 주도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조사 대상 사업 기준 완화가 검토되고 있어 '묻지마 개발'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재부 주도의 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행된 이후 최근 3년간(2011년 상반기-2013년 상반기)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수는 320건으로 이 중 예타조사를 면제한 사업은 270건, 면제율은 84.4%에 달했다. 또 예타조사를 실시한 사업은 39건으로 전체의 12.2%에 불과했다.

2011년부터 기재부는 공공기관 사업 중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해 예타조사를 해 오고 있다. 또 이듬해에는 '공공기관 예타조사 내실화 방안'을 내놓으며 면제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면제사업에 대한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타제도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는 정부 예산사업과는 달리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권성지침에만 의거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기

2011~2013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현황

단위: 건수, %, () 속 숫자는 해당 연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비중 ※ 출처: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사 실시	조사 철회	총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2011년 상반기	107(89.9)	12(10.1)	-	119(100)
2011년 하반기	66(94.3)	3(4.3)	1(1.4)	70(100)
2012년 상반기	50(83.4)	5(8.3)	5(8.3)	60(100)
2012년 하반기	9(45)	8(40)	3(15)	20(100)
2013년 상반기	38(74.5)	11(21.6)	2(3.9)	51(100)
합계	270(84.4)	39(12.2)	11(3.4)	320(100)

관의 예타조사 결과의 근거자료는 비공개로 분류돼 있어 공정성이나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게다가 기타공공기관은 아예 예타조사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있다. 이에 지난 3월 공공기관 예타 대상사업과 면제 사유 등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욱 큰 문제는 최근 정부가 SOC분야에 한정해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예산낭비 방지'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예타조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예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적정 투자시기, 자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 신규사업에 신중하게 착수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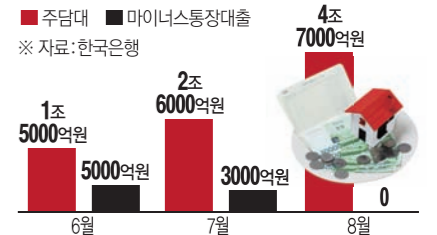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처럼 공기업 주도 대형 SOC국책사업 예타 기준 완화까지 현실화되면 품목별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빠진 재정 사업이 그만큼 많아지게 돼 결국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공기업 부채만 더욱 늘릴 수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9·1대책 효과 아파트가격 상승

	9·1대책 전	9·1대책 후
목동신시가지 7단지 89㎡	6억2000만원	→ 6억8000만원
상계동 보람아파트 79㎡	2억9000만원	→ 3억2000만원
잠실주공5단지 112㎡	11억원	→ 11억5000만원
개포동 주공단지 36㎡	6억1000만원	→ 6억3000만원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



9·1대책 2주 주택·금융시장 명암

아파트 가격 상승 부동산 '후끈' 주택대출로 빚 돌려막기 '우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9·1부동산대책 등 잇단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은 호가를 높이고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신규분양과 아파트 경매시장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1대책 발표 전 6억2000만~6억3000만원에 거래되던 목동 신시가지 7단지 89㎡는 추석 직전 6억5000만~6억6000만원에 팔렸다. 지금은 더 올라 6억8000만~7억원을 호가한다.

목동과 함께 재건축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노원구 상계동 소재 보람아파트 79㎡는 이전 2억9000만~2억9500만원 선이었지만 현재 3억2000만원 안팎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또한 9·1대책 이후 호가가 3000만~5000만원 상승했으며 강남구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들도 단지별로 500만~1000만원씩 소폭 호가가 올랐다.

법원 경매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재건축 연한 단축의 혜택을 받는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 경매 물건은 이달 들어 모두 25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도 95.53%에 달했다.

주택시장이 활력을 띠면서 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자 지난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월 말보다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의 월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조5000억원인 것에 비해 증가폭이 세 배 이상이다. 이는 업권이나 지역에 따라 50~85%로 달랐던 LTV와 50~60%로 차등화됐던 DTI가 지난달 1일부터 업권 등에 관계없이 각각 70%와 60%로 단일화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실제 주택구입 비용 지출보다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가계가 대출 갈아타기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가계빚 증가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불능으로 이어져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부실화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이를 통해 빌린 돈을 마이니스트장 등 신용대출 상환에 쓰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안철우·강영관 기자 acw@

김효주 '에비앙 챔피언십' 짜릿한 입맞춤



김효주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 레방의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극적인 우승을 차지한 후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김효주는 4라운드 합계 11언더파 273타로 캐리 웹(호주·10언더파 274타)을 1타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우승 상금은 48만700달러(약 5억417만원). 한편 김효주는 이번 대회에 초청선수 자격으로 출전해 내년 시즌 LPGA투어 시드를 획득했다. ▶ 관련기사 1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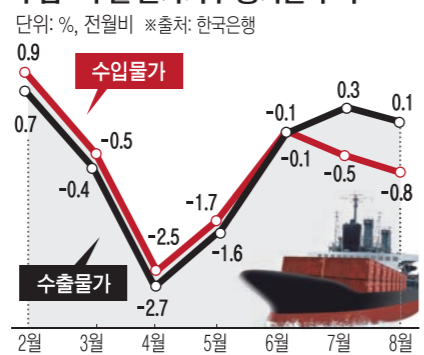
수입물가 6개월째 하락 4년10개월만에 최저치

8월 수입물가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수출물가는 2개월째 상승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한 달 전보다 같은 상품을 수입할 때 더 싸게 사오고 수출할 때는 더 비싸게 판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는 94.16으로 전월보다 0.8% 떨어졌다. 지난 3월 -0.5%, 4월 -2.5%, 5월 -1.7%, 6월 -0.1%, 7월 -0.5% 등에 이어 6개월째 하락세다.

특히 지난달 수입물가는 지난 2009년 10월의 93.28 이후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음에도 유가가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7월 배럴당 평균 106.13달러이던 두바이유 가격은 8월 101.94달러로 3.9% 떨어졌다.

수입·수출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수입물가는 전년 동월비로 봐도 9.9%나 하락했다. 2012년 9월(-2.2%) 이후 24개월째 내림세가 지속됐다. 이는 역대 최장의 하락세다. 이에 따라 저물가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수출물가는 환율이 오르면서 전월비 0.1%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물과 공산품 모두 0.1%씩 올랐다. 공산품은 석유제품이 내렸으나 반도체·전자표시장치(1.0%), 화학제품(0.4%) 등이 올랐던 것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수출물가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8.6% 내렸다. 2012년 8월(-0.7%)부터 25개월째 하락세다. 이진영 기자 min@

'사면초가' 임영록

KB이사회 오늘 긴급 간담회...사퇴 거부면 17일 해임할 듯

KB금융지주 이사회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해임안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관련기사 3면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사화재 등을 둘러싼 임 회장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의 자진 사퇴 가능성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임 회장의 해임 여부, 그에 따른 후속 조치, 경영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사회가 임 회장에 자진 사퇴를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KB금융 이사회가 임 회장 퇴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지난 주말 신재운 금융위원장이 이경제 의장을 만나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이사회가 KB금융 정상화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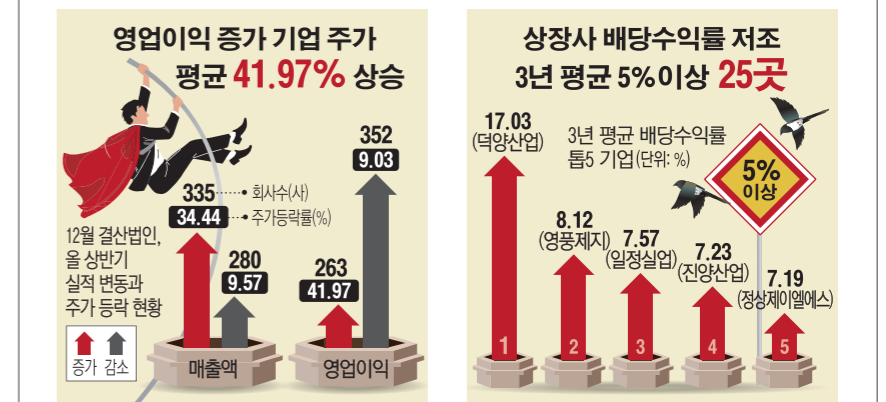
이미 당국은 임 회장의 업무 복귀를 막으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말 KB금융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점검회의를 열고 임 회장을 비롯해 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외이사들마저 당국에 반기를 들 경우 KB금융 사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이에 사외이사들은 임 회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이날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외이사들의 달래기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이 끝까지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이사회는 오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해임을 결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숫자로 본 NEWS



영업의 뚝 기업 주가도 뚝다

코스피 상장사 중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의 주가가 매출액·순이익이 증가한 곳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12월 결산법인 총 688곳 중 615곳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하 개별·별도 기준)이 전년 대비 증가한 곳은 263개 기업으로 이들 증가(이하 1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는 평균 41.97% 상승했다.

상장사 배당수익 저조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5% 이상인 상장사는 25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재벌닷컴이 지난 2011~2013년 상장사의 배당수익률과 배당성향을 분석한 결과,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5% 이상인 상장사는 모두 25개사로 전체 1785개사의 1.4%로 집계됐다.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3% 이상인 상장사도 154개사로 8.6%에 그쳤다.

Biz 월요일~목요일 17~21면

커버스토리
모바일 상품권 전성시대

기술금융의 성공조건
-금융권 보신문화 바꾸자 ▶5면

권오갑 사장 ▶2

장세주 회장 ▶13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위기의 현대중’ 구원투수는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

3년 연속 정유업 이익률 1위
오일뱅크 ‘성공적 경영’ 평가
그룹기획실장직 함께 맡아
최길선 회장과 투톱 체제로



창사 이래 1조원이 넘는 최대 적자에 빠진 현대중공업의 구원투수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이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14일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을 그룹기획실장 겸 현대중공업 사장으로 임명했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이번 인사에 대해 “그룹사 경영을 혁신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사장단 인사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위해 기존 현대중공업 기획실을 그룹기획실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권오갑 그룹기획실장 겸 현대중공업 사장은 1951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1978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런던사무소 부장·서울사무소장(부사장) 등

을 거쳐 2010년부터 현대오일뱅크 사장으로 일해 왔다.

권 사장은 현대오일뱅크를 2011년부터 3년 연속 정유사업부문 이익률 1위 기업에 올려놓으며 경영능력을 이미 검증받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국내 정유 4사 가운데 유일하게 흑자를 일궈냈다. 현대오일뱅크를 높은 고도화 비율, 생산원가 절감 등을 통해 SK와 GS칼텍스, 에스오일 등 경쟁사보다 규모는 작지만 내실이 탄탄한 회사로 키

워놓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현대중공업이 권 사장을 내세운 것은 급속도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 회사는 올해 2분기 매출 12조8115억원, 영업손실 1조103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 줄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적자 전환했다.

이번 인사로 현대중공업은 현업에 복귀한 최길선 회장과 권 사장의 ‘투톱 체제’를

완성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조선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최 회장을 다시 불러들여 조선해양플랜트 부문 총괄회장으로 선임했다. 최 회장은 2009년 세계 조선경기가 급락하고, 군산조선소에 일감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자 회사 발전을 위해 스스로 물러났다가 회사가 적자에 시달리자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앞으로 권 사장은 최 회장과 함께 현대중공업은 물론 그룹 계열사 경영 전반을 챙기게 된다. 특히 권 사장은 모기업인 현대중공업의 수익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내부 조직이던 기획실을 “그룹기획실”로 확대 개편하며 권 사장의 경영에 힘을 실어줬다.

노사 문제도 권 사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현대중공업은 19년 동안 노조 무분규 기록을 세워 왔으나 최근 파업 위기에 내몰려 있다. 노조는 오는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찬반투표 일정 등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그룹 경영 전반을 지휘했던 이재성 회장은 상당액을 맡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현대오일뱅크 대표에는 권 사장 후임으로 문중방 부사장이 내정됐다.

권태성 기자 tskwon@

‘노스페이스 신화’ 만든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수출 1조 시대 열겠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 신화를 이룩한 성기학(사진) 영원무역 회장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월 27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짐체의 늑에 빠진 한국 패션산업의 부활을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영원무역의 수출 1조원 목표도 쟁겨야 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역할에 분주할 법도 하지만 결국 같은 하나로 통해 있다. 중국과 홍콩 등에 빼앗긴 해외 수출 물량을 찾아오는 것은 국내 섬유산업계의 목표이지만 해외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영원무역의 목표와도 맞닿아 있어서다.

2012년은 성기학 회장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해다. 그해 그가 회장으로 있는 영원무역이 처음으로 연매출 1조원을 돌파했고, 수출 전초기지 방글라데시에서 총 수출액 5000억원을 넘기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0% 늘어난 6000억원을 돌파했고, 이런 추세라면 3년 만에 매출 1조원을 넘기는 데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방글라데시 수출이 의미를 갖는 건 대부분의 패션업체들이 중국으로 눈을 돌릴 때 영원무역의 미래를 책임져 줄 생산기지로 성 회장이 선택한 신의 한 수였기 때문이다. 사업 초기 성 회장은 한국이 쿼터제로 인해 수출 물량을 더 이상 크게 늘리기 힘들다고 판단, 1980년부터 방글라데시 개척에 주력했다. 방글라데시는 1974년 영원무역을 세운 지 6년 만에 진출한 곳이자, 현재 현지법인만 17개나 될 정도로 30년간 공들인 곳이다.

영원무역은 미국과 유럽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방글라데시 생산 물량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 회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방글라데시 생산기지는 연평균 20%씩 성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2017년 1조원 시대가 머지않아 보이는 것도 영원무역의 최대 시장 미국과 유럽에서의 주문이 폭주하면서 최근

미국·유럽 시장 주문량 폭주
방글라데시 생산기지 풀가동
“2017년 매출 2조원” 자신감
섬산련 회장 취임 등 바쁜 행보

증산을 마친 방글라데시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어서다.

방글라데시 수출 1조원 목표가 달성되면 영원무역의 매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영원무역은 2017년 매출 2조원대 진입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조1000억원의 매출보다 90%가 넘는 수치다. 영원무역은 올 상반기 560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전년 -3%의 부진한 기록과 비교하면 2조원 장밋빛 전망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전망이다.

최근 성 회장은 섬산련 회장을 맡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올해 15회째를 맞은 섬유 박람회 ‘프리뷰 인 서울 2014’를 개최했다. 앞서 열린 섬유패션업계 최고 경영자 간담회에서 섬유패션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두고 정부에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다국적 제약사 ‘여풍당당’

한국BMS 김은영 사장 등 7명 활약중
국내 제약사에선 아직 여성 CEO 없어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지사엔 여풍이 불고 있다. 제약사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제약시장이 투명해지고 있는 만큼 우격다짐 방식의 마케팅에서 벗어나 여성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한국BMS제약은 김은영 전 영암마케팅 총괄 책임자를 CEO로 전격 선임했다. 이로써 국내에는 모두 7명의 여성이 다국적 제약회사의 수장으로 활약 중이다.

지난해 부임한 조던 터 사장의 바분을 이어받은 김은영 대표는 1974년생의 젊은

나이이지만, 경력만큼은 백전노장이다.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BMS제약 영암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활동하다 노바티스로 옮기며 싱가포르 지사장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 스위스 등 여러 국가에서 근무하며 영암마케팅, 기업전략, 기업 전략적 제휴, 비즈니스 사업부 통솔 등의 업무를 맡은 바 있다.

국내 첫 여성 CEO 탄생 테이프는 2012년 한국안선의 김옥연 대표가 끊었다. 김 대표는 특히 평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김 대표 이후 레오

파마 주상은 대표, 사노피아벤티스 베경은 대표, 젠자임코리아 박희경 사장,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리즈 체트윈 사장, 멀츠코리아 유수연 대표 등이 줄줄이 여성 CEO로 등극했다.

국내시장에 대한 ‘여성 7인방’의 감성 공략은 필러와 톨신 등 여성 특화제품을 생산하는 멀츠에서 잘 드러난다. 유수연 대표는 여성 CEO의 장점에 대해 여성 입장에서 환자들의 요구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과, 직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열정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한국 제약사에선 여성을 CEO로 선임한 경우는 아직 없다. 한국 제약사는 전통적으로 오너십이 강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한국 제약사에 CEO 자리는 사실상 경영승계를 위한 요직으로 남아 있다. 그나마 최근 연구개발이 중요해지면서 연구원 출신을 CEO로 선임하는 경우가 일부 있으나, 여성의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환경이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박성제 기자 psj@

aT
대한민국 농수산물식품에
마술을 걸다

산지는 든든하게, 식탁은 안전하게
생산자의 보람과 소비자의 만족이 더 커지는 행복한 세상
행복마술사 aT를 만나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www.aT.or.kr

대한민국 농수산물식품의 힘 **aT**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KB금융 내분사태 일지



2013년	
10월 31일	국민은행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주전산시스템으로 유닉스 선정
11월 11일	유닉스 전환 경영협의회 의결
12월	유닉스 전환 벤치마크테스트(BMT) 수행
2014년	
4월 14일	한국IBM 대표 이진호 행장에게 수정 가격제한 이메일 발송
4월 24일	주전산기 전환사업 추진 계획 이사회 통과
4월 28일	은행 감사팀 감사 착수
5월 16일	주전산기 관련 보고서에서 전환 리스크 축소할 사실 적발한 감사보고서 작성
5월 19일	이사회, 임시 이사회서 감사보고서 채택 거부 행정 이사회 개최 결과 및 감사보고서 금융감독원 보고
5월 30일	임시 이사회, 금감원 감사종료시까지 전산교체사업 보류
6월 9일	금감원,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 행장에 중징계 사전통보
6월 23일	임시 이사회, 한국IBM 공정위 신고 결정
8월 22일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 임 회장과 이 행장에 경징계 결정
8월 22~23일	KB금융그룹 경영진 템플스테이 행사. 이 행장 조기 귀가
8월 26일	국민은행, 금감원 징계받은 전산 담당인원 3명 검찰 고발
9월 4일	최수현 금감원장, 임 회장과 이 행장 중징계로 상황조정. 이 행장 즉각 사임. 임영록 KB금융 회장 사퇴 거부
9월 10일	임 회장, 금감원 징계로 반박하는 기자회견 개최
9월 12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임 회장 직무정지 3개월로 징계수위 상향 확정
9월 13일	금융위·금감원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 열고 임 회장 및 핵심 관리자 검찰 고발 결정
9월 15일(예정)	KB금융 사외이사, 긴급 간담회 열고 임 회장 해임안 상정 논의

强手 두지만... '한 수' 없는 林, 자진사퇴 가능성

〈강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금융당국·검찰 전방위 압박

금융위·금감원 오늘 검찰 고발
자회사 감독관 파견 밀착모니터링
개인정보유출 등 추가 제재 뎀 궁지
사외이사들도 사퇴권고 분위기
林회장 버티기 속 장기전은 부담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고립무원(孤立無援)에 빠졌다.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금융당국은 검찰 고발까지 하면서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고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사외이사마저 스스로 사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압박과 이사회 탈락기 속에서 임 회장의 자진사퇴 가능성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검찰, 임 회장 동시 압박 = 금융당국은 임 회장을 밀어내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시간을 끌수록 당국의 책임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말 KB금융 관련 긴급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5일 금감원을 통해 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 자회사에 감독관을 파견해 경영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무정지 기간 중 임 회장의 경비 집행은 물론 사내 변호사 조력까지 차단해 그의 손발을 철저히 묶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임 회장은 금융당국이 결정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미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를 받은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KB금융의 조치가 15일과 17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KB금융은 15일과 17일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임 회장의 거취를 논의할 예정이다. 15일 오전 중구 명동 KB국민은행에서 회의를 마친 계열사 사장단이 나오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특수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임 회장이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만큼 '관피아' 수사 차원에서 개인비리 혐의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같은 전방위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이 끝까지 버틴다면 금융당국은 KB국민카드 개인 정보 유출 이란 두번째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KB금융지주 시장 재직 시절 계열사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KB금융 이사회 사태 해결 나서 = 이제 KB 내분 사태 해결의 키는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에게 넘어갔다.

사외이사들은 17일 이사회 앞서 15일 간담회를 열고 임 회장의 해임 여부, 그에 따른 후속 조치, 경영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

KB금융 사외이사

이름	직책	주요경력
이경재	의장	전 기업은행장
김영진	감사위원장	서울대 경영대 교수
황건호	리스크관리위원장	전 금융투자협회 회장
이종천	평가보상관리위원장	송실대 경영대 교수
조재호	리스크관리위원	서울대 경영대 교수
고승의	감사위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김영과	경영전략위원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명직	리스크관리위원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장
신성환	감사위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까지 임 회장의 자진사퇴 가능성을 열어 주자는 의미다. 임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시키려면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 가운데 올해 임명된 3명을 제외한 6명은 임 회장이 사장 시절부터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금융당국 압박 속에서 이들과 그에게 사퇴를 권고한 상황이라 임 회장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임 회장으로서도 금융당국과 장기전을 치르기는 부담스럽다. 금융위원회에서 '괘씸죄'를 씌워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미루거나 개인정보 유출 따른 추가 제재를 결정하면 그는 더 궁지에 몰리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의 자진 사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압박용 카드는 몇 장 더 남아 있지만 임 회장은 더 이상 막아낼 카드가 없다"며 "KB내분 사태는 이사회가 예정된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내달 말 결론내는 'LIG손보 인수'도 영향권?

KB금융 "승인 기대" vs 금융당국 "불투명"

이사회, 운용원 부사장 '직무대행'으로

금융위원회가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이란 '초강수'를 두면서 KB금융의 LIG손보 보험 인수작업도 불투명해졌다. KB금융은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게 LIG손보 인수 승인을 기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경영 공백 상태가 LIG손보 인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금융은 LIG손보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고 승인 여부는 다음달 말 금융위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영록 회장에 대해 당초 예상했던 '문책경고'에서 '3개월 직무정지'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LIG손보 인수 심사는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금감원이 수행 중이며 KB지주와 LIG손보의 경영 건전성, 경영상태, 인수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영평가 결과 등이 주요 심사 항목이다.

임 회장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KB금융지주가 회장 자리를 비워둔다면 경영건전성과 경영상태 항목에서 점수가 낮아 LIG손보 인수 심사가 큰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금융의 경영 공백은 LIG손보의 계열사 편입 승인 심사에 심대한 하자로 볼 여지가 있다"며 "현재 상황을 심각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당국의 입장에 대해 KB금융은 말을 아끼면서도 LIG손보 인수가 그룹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승인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난 12일 임 회장의 직무정지 직후 회동을 하고 운용원 부사장(전략재무담당 CFO)을 직무대행으로 결정하는 등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KB금융 관계자는 "회장이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LIG손보 인수에 아무 차질이 없도록 계획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순조롭게 인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rfs0118@

금융위 '3개월 직무정지' 결정 배경은

林회장 '감독의무 태만·부당 인사개입' 판단

금융위원회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주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한 감독의무 이행 태만과 부당인사개입이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임영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심의하고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상향 의결했다. 금융위가 임 회장의 징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외부 기관의 컨설팅 보고서 왜곡, 유닉스시스템 전환비용 조작 등 KB지주 주도로 이뤄진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임 회장이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진호 전 행장을 불러 4차례에 걸쳐 유닉스시스템 전환에 소극적인 IT본부장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고, 자신이 추천한 인사를 승진시키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1시간여 동안 본인의 입장을 소명했다.

주전산기 선정과 관련해 업체 선정이나 가격 등 최종 의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 중인 일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 타당하지 못했다. 또한 국민은행 임원인사개입은 "지주와 자회사는 임원 인사를 서로 협의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만큼 부당한 인사개입이란 성립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임 회장은 아울러 지난달 21일 제재심에서 경징계로 판단한 것을 금감원장이 객관적 사실의 변동 없이 중징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을 경청한 금융위 위원들은 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임 회장의 직무상 감독의무 등 태만에 중과실이 인정되며 KB금융의 경영건전성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며 징계 수위를 높였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러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서민의 내일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신한은행의 남다른 서민금융

신한은행은 차원이 다른 서민금융과 모두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서민경제에 풍성한 행복을 키우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신한은행의 풍성한 서민금융

새희망출시 대출
신금 100만원 (신금 100만원)
(신금 100만원)

희망금융클리카스
신한금융그룹 20개 신상품 20개

서민금융 최우수은행
금융감독원 선정 2013년 서민금융 최우수은행

소상공인금융 및 컨설팅
다양한 연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지원
지원할 사업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

※ 별도의 법적 계약이 없는 한 신한은행은 다른 그룹사의 채무에 보증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 신한카드 | 신한금융투자 | 신한생명 | 신한BNP파리비저신용 | 신한캐피탈 | 제주은행 | 신한지속은행 | 신한데이터시스템 | 신한이머티스 | 신한인생정보 | 신한프리미엄에쿼티

대기업부담금만 바라보는 장애인고용

공단, 독자재정 미흡... 기업들도 고용 대신 부담금 선택

‘적자-고용률상향-적자해소’ 반복... “보조적 재정 벗어나야”

장애인고용공단의 재정이 대기업들의 장애인고용부담금에 크게 의존하면서 장애인 고용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이 내는 금액으로 연간 3000억원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용부담금은 한해 자금 고갈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후 의무고용률 상향조정을 통해 흑자로 전환했다. 특히 예산확보가 녹록지 않은 공단의 경우 한 해 고용부담금 수입에 따라 재정여건의 회복이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면 부담금이 늘어나고 이 부담금이 장애

인 고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되며 이후 재정이 고갈될 시기에 고용률을 상향해 다시 채워넣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단의 부담금 중심의 재정 여건이 수동적 장애인 고용을 양산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이하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9곳뿐이었다.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삼성의 경우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올해 142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1.86%의 의무고용률을, LG는 1.55%의 의무고용

10대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국회자료)

기업명	장애인고용률 (2013년 말 기준)	2014년 부담금액 (백만원)	기업명	장애인고용률 (2013년 말 기준)	2014년 부담금액 (백만원)
삼성	1.86	14,297	엘지	1.55	13,689
한국전력공사	3.223	65	롯데	2.52	4,162
현대자동차	2.73	4,403	포스코	1.97	2,500
한국토지주택공사	2.09	0	현대중공업	2.86	510
에스케이	0.88	6,246	지에스	0.96	4,663

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의무고용률 기준인 2.7%에 크게 못 미치는 성적이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는 각각 올해 142억9700만원과 136억89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 △SK 62억4600만원 △포스코 25억원 △GS 46억6300만원 △한진 38억5800만원 △한화 29억8700만원 △KT 30억1500만원 △두산 11억8700만원 △신세계 18억2500만원 등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일각에선 이와 관련, 고용여건이 좋은 대기업으로 갈수록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에 기울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공단의 독자재정이 미흡한 탓에 장애인 고용을 꺼려하는 대기업의 돈을 받아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보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단의 보조적 재정확대와 부담금 일련도의 장애인고용촉진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안전점검

제2롯데월드 최고층 타워동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시민자문단 1분과 및 안전분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앞서 서울시와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차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증세’ 논란 언급할지 주목

거위털 뽑는 정부... ‘증세 불가론’ 깬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증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장은 최근 잇달아 담뱃값과 주민주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증세는 없다”던 정부가 사실상의 증세로 돌아서면서 조세 저항도 커지는 분위기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세법개정안에 따른 연간 세수 증대 8489억원, 최근 밝힌 담뱃값 인상 추진으로 2조8000억원, 주민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 개편으로 1조4000억원 등을 모두 더하면 벌써 5조원의 증세를 한 셈이다.

담뱃세 이어 주민주세 올리자 ‘우회증세’ 비판 이어져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 루이 14세 시절 프랑스의 재무장관 장바티스트 콜베르가 언급한 세금 징수의 기술이다.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주민주세도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우회증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콜베르의 조언대로 ‘거위털을 뽑는’ 모습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000원 이상 올리기로 하는 내용의 ‘금연대책’과 주민주세, 자동차세를 현행

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개편방안’을 연달아 발표했다. 담뱃값 인상은 2조8000억원 상당의 국세가, 지방세 개편방안을 통해서는 약 1조4000억원의 지방세가 더 건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사이에 약 4조원이 넘는 증세를 단행한 셈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증세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다. 문장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담뱃값은 국민 건강 증진을, 지방세는 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내 걸었지만 이번 조치가 기본적으로 증세라는 것을 어느 정도 공식화한 것이다.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해명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세법개정 당시 증산증세 논란

이 불거지자 나흘 만에 대통령이 나서서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는 등 이 문제에 민감했던 모습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느껴진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전부터 누누이 ‘증세는 없다’는 약속을 해 왔다. 사실상의 대신 공약인 ‘증세불가’ 입장을 철화한 것치고는 차분한 대응이다.

전문가들은 증세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득세, 담뱃세, 주민주세 등 주로 서민을 대상으로 증세가 이뤄지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담배를 하루 한 갑 위주는 노인 예로 들면 기초연금을 10만원 늘려주고 6만원을 다시 담뱃값으로 뺏아가는 격”이라며 “가처분소득을 늘린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a@

오늘 국회 본회의 불발... 與, 26일 단독 소집할 듯

오늘 국회 본회의 불발... 與, 26일 단독 소집할 듯

여당은 15일 본회의 개최에 실패하면서 더 이상 본회의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6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오는 26일 본회의 소집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방출장 자제 등 비상대기령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의사일정에 협의하지 못한 채 안건속에 빠졌다. 여당은 야당이 계과 갈등 등으로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26일 본회의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사진기자협회 체육대회를 찾아 “15-16일 운영위 위원들에게 16일 운영위 소집을 공식 통보할 것”이라며 “16일 운영위에서는 전체적인 정치국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와 국회의장도 그동안 본회의 ‘직권 상정’에 부정적이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정의장은 이날 오후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의장단-야야 지도부 연석회의를 소집할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 내부 갈등 등으로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번 연석회의조차 불발로 끝나거나 전향적 결말을 내지 못한다면 본회의의 강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운영위에 협조 공문을 보내 26일 본회의 개최를 예정한 바 있다. 윤필호 기자 beellebum@

양세를 부담스러워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당정협약에서는 그간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정부안도 출 과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당정협약에는 정부 측에서 정중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하게 대두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내년 가입기간부터 수령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민간부문 퇴직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a@

만성적자 공기업 퇴출시킨다

새누리, 법률 제정 추진... 19일 공청회서 혁신방안 발표

새누리당이 만성 적자 공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14일 경제혁신특위에 따르면 연속적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도 법에 근거가 없어 폐쇄가 불가능했던 공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설립 후 3년이 지난 때까지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5년 이상 계속 당기순손실이 나고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해 영업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할 때 퇴출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새 제도(공기업 퇴출)를 만들면 기존의 법(지방공기업법)을 참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20년 이상 적자가 나고 있는 석탄공사나 2005년 출범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한 코레일의 경우 퇴출 대상이 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에는 퇴출 방법으로 ‘주식의 양도, 해산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면 국유화, 민간에 넘기면 민영화, 다른 공기업이 인수하면 합병이 된다. 해산은 회사를 아예 없애는 것이다. 새누리당 혁신특위는 또 공기업들의 자회사 설립과 지분 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영 기자 sypark@

가계 도움 안되는데... 금리 왜 내렸을까

금융자산 부채보다 많아... 한은,崔부총리 부양책에 공조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대출이자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추정해 발표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의 실소득을 늘려주는 데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8월 금리인하의 실익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한은이 새정치민주연합 오세재 의원의 질문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시장금리와 예대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가 대출이자 등을 갚느라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연간 2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가계가 예·적금 이자소득 감소액은 연간 4조4000억원으로, 이자비용 감소분의 1.6배에 달한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더 많은 것이 그 배경이다.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올 3월 말 기준 2673조9000억원으로 금융부채 1225조3000억원보다 2.2배 더 높다.

이에 따라 중립성을 지켜야 할 한은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부양책 경제정책에 공조하기 위해

과가 미미한 금리인하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총재 스스로도 금리인하가 가계의 실질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라는 데 의구심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7월 한 포럼에서 “가계는 부채보다 금융자산 비율이 높아 금리인하가 반드시 소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금리인하는 우려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증가를 감소한다는 것이어서 소비여력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8월 금동위 이후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며 모호한 ‘심리효과’만을 언급했을 뿐이다.

8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낸 문우식 금동위원도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자비용 감소로 인한 소비 증가보다는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가계의 소득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기업의 이익을 가계로 환류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진영 기자 mint@

당정, 한달만에 공무원연금 개혁 재논의

공무원연금을 쥐고 퇴직수당은 인상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정치권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는 18일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여당과 정부의 당정협약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불발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당정협약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공무원연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이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의식해 개혁 주체로 나서서 모

양세를 부담스러워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당정협약에서는 그간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정부안도 출 과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당정협약에는 정부 측에서 정중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하게 대두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내년 가입기간부터 수령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대신 민간부문 퇴직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a@

하우스푸어 지원 ‘희망임대리츠’ 3차로 종료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업을 끝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주택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하우스푸어가 감소한 데다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 등에 따른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sypark@

하우스푸어(House Poor)는 집을 갖고 있지만 과도한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앞서 국토부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주축으로 민간 합동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 주거하고 1500억원 규모의 ‘희망임대주택리츠 1호’를 만들어 지난해 6월 처음 선보였다. 박성영 기자 sypark@

‘세탁기 고의파손’ 삼성·LG 진실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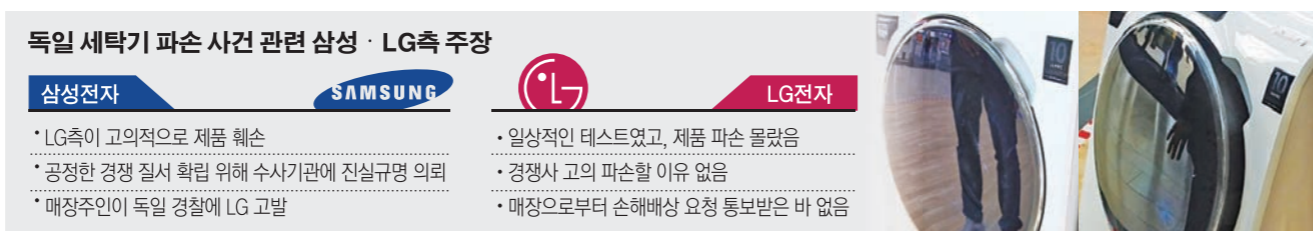
이달 초 IFA 2014 기간 중 발생한 독일 양관점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중심에 LG전자 HA사업본부장 이끄는 조성진 사장이 거론되고 있어 파장은 예상보다 클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14일 LG전자의 조 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 상무 등 임직원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뢰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 조 사장 일행이 자사의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파손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전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삼성전자의 ‘세탁기 고의 파손’이라는 표현이 자사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달 초 베를린에서 열린 IFA 기간 중 유럽 최대 양관점인 자문의 독일 베를린 유로파센터 및 슈타글리츠 매장에 조 사장 일행이 삼성전자 신제품인 크리스탈 블루 세탁기에 손을 대면서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베를린 자문 유로파센터 매장에서 크리스탈 블루 세탁기가 파손돼



도어 개폐 후 정상적으로 도어가 닫힌 제품(사진 왼쪽)과 도어 개폐 후 정상적으로 도어가 닫히지 않은 파손된 제품의 사진.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 조성진 사장 수사뢰

“獨 매장 전시 ‘크리스탈 블루’ 도어 파손 장면 CCTV 확인”

혐의 전면부인에 나선 LG

“연결 부문 타사보다 취약해 임직원이 고장낼 이유 없어”

다른 매장을 점검하던 중 자문 슈타글리츠 매장의 세탁기 3대도 동일한 형태로 망가진 사실을 확인,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슈타글리츠 매장 측과 CCTV를 확인한 결과 양복 차림의 동양인 남자 여러 명 중 한 명이 세탁기를 파손시키고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삼성전자는 제품을 파손한 당사자가 조 사장 등이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국가적 위신 등을 고려해 국내에 돌아와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세탁기 도어를 오픈 상태로 15kg의 하중을 1000회 반복해서 썼을 때 2mm 이상 이격 발생 시 불합격 처리해 아예 출고하지 않는 자체 품질 테스트 기준이 있다”며 “제품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 측은 “당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해당 매장을 방문해 여러 제품을 살펴본 사실이 있다”면서도 “특정 회사의 제품을 파

손시켜 그 제품 이미지를 실추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임직원이 직접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회사 세탁기들과 달리 유독 특정회사 해당 모델은 세탁기 본체와 도어를 연결하는 힌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제품이 비슷한 형태로 여러 개 파손됐고, 더욱이 일선 매장에서 이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면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이미 일반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만큼 LG전자 측 주장대로 제품 테스트가 목적이었다면 구매 후 회사 내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다”고 반문했다. 정호진 기자 js62@

‘외국계 영리병원’ 1호 후보 산일병원 설립 불허 가다

복지부 “사업추진 능력 부족”

보건복지부가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 후보인 산일병원의 설립을 허락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1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일병원의 사업 주체인 중국 CSC측이 다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제주도는 앞서 중국 CSC측에 중국 모기업 부도설과 회장 구속설 등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응급의료체계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최종 검토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종 승인권자인 제주도가 CSC측에 승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로써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의 유력한 후보였던 산일병원 건립이 신장 1년여 만에 무산돼 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실적은 1건도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9월 중에 산일병원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희중 기자 h9913@

코레일 직원들, 철도노조에 경영정상화대책 합의 촉구

오늘 8000여명 결의대회 열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노조의 노선에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대회를 열기로 해 주목된다.

14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8000여명은 15일 서울역, 대전역, 부산역, 영주역, 순천역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철도노조 집행부의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 조속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결의대회 일정은 대전역 오전 10시, 서울역 오전 11시, 영주역 오후 3시, 순천역 오후 7시, 부산역 오후 7시 30분이다. 8000여명은 전체 직원 2만7000명의 30%에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는 철도노조 조합원도 포함돼 있다고 코레일 측은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철도노조 집행부가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대책 중 마지막 남은 ‘퇴직금 산정방식 개선’에 오는 20일 전까지 조속히 합의, 방만 경영 해소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아시아게임 ‘철통 경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뒷세 앞 둔 1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입구에 경찰특공대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편의점·외식업체 도시락 10개종 1개서 대장균

CU·불고기브라더스·비비고 검출

아웃백·빔스·TGI·등 나트륨과다

국내 편의점과 외식업체에서 판매하는 일부 도시락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나트륨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도시락도 제재없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편의점, 피자, 도시락 전문점, 외식업체 등에서 판매되는 30개 도시락에 대해 미생물 및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CU의 ‘더블 BIG 정식’, 불고기 브라더스의 ‘한우 채끝등심 도시락’, 비비고의 ‘싱글C 불고기비빔밥’ 등 3개 도시락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30개 제품 모두 황색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를 검출되지 않았고, 바실러스세레우스의 경우 7개 제품에서 검출됐으나 기준치는 넘지 않았다.

법원, 신일산업 임시주총 소집허가 기각

신일산업은 황귀남씨가 신청한 임시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주주권 행사를 위임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

므로 임시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위한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던 임시주총은 취소됐다. 법원은 또 황씨가 신청한 신규발행금지 가처분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황씨는 그동안 신일산업에 상대로 적대

해당 제품은 레일락의 ‘햄버거 스테이크 도시락’, 아웃백의 ‘네드 켈리 불고기 도시락’과 ‘비비고 스테이크 도시락’, 빔스의 ‘돈가스 도시락’, TGI의 ‘잭다닐 잼 스테이크 도시락’ 등이다.

또 베니건스의 ‘불고기 도시락’, 불고기 브라더스의 ‘한우 채끝등심 도시락’과 ‘제육쌈밥 도시락’, 비비고의 ‘타임B 제육불

고기’의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외식업체 도시락과 피자 내 도시락이 편의점 도시락과 도시락 전문업체 도시락보다 상대적으로 열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식업체 도시락(12종)이 1200kcal로 칼로리가 가장 높았고 피자 도시락(2종)은 919kcal, 편의점 도시락(8종)은 643kcal, 도시락 전문업체 도시락(8종)은 637kcal 등의 순이었다.

도시락의 평균 가격은 외식업체 도시락이 1만5775원으로 가장 비쌌고, 편의점 도시락이 331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피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의 평균 가격은 8750원, 도시락 전문업체의 제품은 3863원이었다.

이번 도시락 비교정보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정 기자 imj@

담뱃값 2~3년마다 올린다

정부 ‘물가연동제’ 추진

물가상승률 2~3%대 가정

200~300원씩 오르게 돼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자동으로 담뱃값이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물가가 2~3%대의 인상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담뱃값은 2~3년마다 200~300원씩 오르게 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내용을 담은 담뱃값 물가 연동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환율을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절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면 매년 소폭 인상하기보다는 소비자물가가 5% 상승하는 때마다 담뱃값을 그에 맞춰 인상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설정하는 작업은 이후 관련법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5~3.5%에 해당할 경우 담뱃값은 2년 이내에 한번씩 200~300원 가량 오르게 될 것 전망이다. 다만 1%대 저물가가 이어지면 인상 간격이 4년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매년 3%로 가정할 경우 10년 뒤인 2025년에는 담배 한 갑당 6048원이라는 가격이 나온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담배소송 첫 재판 열띤 공방

“담배 유해성 은폐” “건보 소송자격 없다”

건보공단

“기호품이라 주장 책임 회피”

담배사들

“흡연자 아닌 공단 배상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의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이번 재판에서 양측 대리인은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중독성과 유독성이 모두 검증된 담배를 기호품이라 주장하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담배는 ‘허락되지 않은 위험’으로, 69종의 발암물질과 4000여종의 화학물질을 포함한다”며

“그런데도 담배회사들은 그 유해성을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경고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또 “담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담배의 실체와 담배회사들의 책임이 낱알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를 봤다고 배상을 청구했는데, 불가능한 소송”이라며 “법률상 자연인인 보험 가입자의 손해에 대해 대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별 보험 가입자가 담배 때문에 손해를 봤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암에도 걸리지 않았다는 가정적 전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수 기자 tearand76@



봄비는 해외유학박람회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추계 해외 유학·이민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한 유학전문업체의 부스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두천중앙성모병원, 사무보조 계약직

여성직장 재탐색

동두천중앙성모병원에서 총무팀 사무보조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다.

채용된 직원은 육아휴직 결원을 대체해 1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지원자는 1년 이상의 경력에 요구되며, 학력이나 전공, 외국어능력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문서작성,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회계프로그램 등을 다룰 수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유혜은 기자 euna@

모집직종	단순경리사무원
직무내용	총무팀 사무보조
접수마감일	채용시까지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12개월
경력조건	1년 이상
학력	학력무관
우대사항	인근거주자, 청년층, 학점우수자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사회봉사 활동 경험자 등은 채용시 우대받을 수 있다.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 중식 등이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863-0550)로 문의 가능하다. 유혜은 기자 euna@

한 자릿수 성공률에도
수십 년간 이어온 원유 개발을 향한 집념

CDMA부터 광대역 LTE-A까지
최초를 위한 30년의 열정

세계와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지킨
산업의 쌀, 반도체

도전(挑戰)과 패기(霸氣)로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에너지·화학, 정보통신, 그리고 반도체까지 -

더 단단한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묵묵히 대한민국에 힘이 되도록 **OK! SK**

DGB금융 '우리아비바'·BS금융 'GS자산운용' 인수나서

지방금융지주 非은행업 勢확장 속도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성 악화... 계열사간 시너지 기대

지방 금융지주회사들이 세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으로 은행업의 수익이 갈수록 악화되자, 이들 지방금융사들은 자산운용업 등 잠재 성장성이 크고 계열사와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은행업 분야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이달 중 우리아비바생명보험에 대한 실사에 착수한다. 앞서 DGB금융은 지난 5월 NH농협금융과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방금융 최초로 보험업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DGB금융은 올해 안에 가격 조율 등을 끝내고 내년 초까지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DGB금융이 우리아비바생명을 인수하게 되면 그룹 내 비은행 비중이 12%대로 확대돼 수익원 다변화와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한 종합금융 도약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DGB금융은 총자산 기준으로 은행업 부문 비중이 96%에 달한다. 이는 다른 지방 금융지주인 JB금융(77.9%)이나 BS금융(90.8%)에 비해 높은 수치로, 그만큼 저성장-저금리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의 복합금융점포 설립과 복합상품 출시 등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윈윈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시장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BS금융의 경우 GS자산운용 인수를 추진한다. BS금융은 GS자산운용이 유상증자를 한 이후 51%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BS금융이 이르면 연내 GS자산운용 인수 계약을 맺고 내년 초 최종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S금융이 자산운용사 인수에 뛰어든 것은 부산은행, BS투자증권, BS캐피탈을

금융사	계열사
BS금융	부산은행, BS투자증권, BS캐피탈, BS저축은행, BS금융정보, BS정보시스템
DGB금융	대구은행, DGB캐피탈, 유페이먼트, 대구신용정보, DGB데이터시스템

출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BS금융의 경우 GS자산운용 인수를 추진한다. BS금융은 GS자산운용이 유상증자를 한 이후 51%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BS금융이 이르면 연내 GS자산운용 인수 계약을 맺고 내년 초 최종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S금융이 자산운용사 인수에 뛰어든 것은 부산은행, BS투자증권, BS캐피탈을

비롯해 오는 10월 최종 인수 예정인 경남은행 등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위한 것이라 분석이다.

특히 자산운용업의 경우 기존 은행업과의 시너지 효과 뿐만 아니라 소액대출업 형태로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BS금융 자회사인 BS캐피탈은 지난 8월 미얀마 현지에서 소액대출업에 대한 영업 인허가를 취득하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금리-저성장이고착화되면서 은행업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은행업 비중이 높은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비은행업 분야에 대한 인수·합병(M&A)이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imji@

'비과세 일몰'에 흔들리는 상호금융

혜택 기한 내년 말 종료 예정 자금 이탈·조합원 피해 예상 의존도 높은 신탁 큰 타격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오는 2015년 말로 끝나는 비과세 혜택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비용(LTV) 단일화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5개 상호금융기관들이 비과세 일몰제 시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업권별로 차등 적용되던 LTV 비율이 전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상호금융권이 직격탄을 맞자, 비과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월 평균 주택담보대출 순증가액은 LTV·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조치 전에 5000억원대였으나 지난달 800억원대로 급감했으며 추가 대출 수요도 거의 없는 상태다.

현행 조세특례법에는 5개 상호금융기관을 통틀어 출자금 1000만원,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과세 조항은 내년 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박엘리 기자 ellee@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 등 타 금융회사와 달리 상호금융기관에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 이유는 농·어민 등 영세계층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비과세 혜택이 목적을 달성했으며 금융회사간 형평성 차원에서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칼을 빼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비과세 및 조세 감면 정비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특별히 해를 없애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 추가적인 세수 증가 효과까지 거두겠다는 각오다.

상호금융기관들은 비과세 혜택이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양극화 해소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신탁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과세 혜택 의존도가 높아 비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신탁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탁의 총액 50조2246억원 중 비과세 혜택은 24조1016억원으로 절반(48%)에 육박한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주로 영세 서민들이 주거대출인데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자금 이탈과 함께 조합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면서 "저금리 기조에 그나마 있던 상호금융권의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 특검 착수

ING생명과 같은 약관 중점 검사 16개 생보사 미지급 2197억 파악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16개 생보사에 지급되지 않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자살보험금 문체에 연루된 보험사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5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16개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ING생명과 같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보험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에는 ING생명과 같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보험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ING생명은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4억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ING의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는 총 56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프르덴셜생명,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가 ING생명과 똑같은 약관을 사용한 점을 감안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NG생명 처럼 비슷한 약관을 적용해 온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등을 잘 지켜왔는지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프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하고 재해사망특약을 판매한 보험사들이 미지급한 보험금액은 총 21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특검 소식에 앞선 데 따른 것이라는 반응이다.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업황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가혹하거나 어려운 시기에 자살보험금 사태까지 과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보험사들이 신계약 부진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보험금까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nls0118@



BC카드사는 12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위치한 만다린은행(Bank Mandiri) 본사에서 인도네시아 내 신용카드 메인사업 수행을 위한 '신용카드 프로세싱 합작사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은 서준희 BC카드 사장(오른쪽)과 부디 사디킨(Budi Sadikin) 만다린은행장.

BC, 인도네시아에 카드매입 노하우 수출

만다린은행과 합작사 설립 MOU

신용카드 프로세싱 기업 10여 곳과 경쟁한 끝에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단독 선정됐다.

만다린은행은 BC카드가 30여 년간 축적해온 매입 업무 노하우와 모기업 KT의 정보통신기술(CT) 지원 역량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BC카드의 인도네시아 합작사 설립은 처음으로 금융 프로세싱 사업을 직접 수출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는 설명이다.

BC카드와 만다린은행이 설립할 합작사는 '인도네시아판 BC카드'가 될 전망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프르덴셜생명,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보사가 ING생명과 똑같은 약관을 사용한 점을 감안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NG생명 처럼 비슷한 약관을 적용해 온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등을 잘 지켜왔는지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프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하고 재해사망특약을 판매한 보험사들이 미지급한 보험금액은 총 21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특검 소식에 앞선 데 따른 것이라는 반응이다.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업황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가혹하거나 어려운 시기에 자살보험금 사태까지 과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보험사들이 신계약 부진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보험금까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nls0118@

금융당국, '甲질' 보험대리점 손본다

대형GA 꺾기·불완전판매 등 11월 공청회서 제재 근거 마련

금융당국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정조준 하고 있다. GA가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험사에 소위 갑(갑)의 횡포를 부리며 모집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이달 초 대형 손보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GA 문제와 관련해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공청회 내용은 대형 GA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가 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손보 상위 4사와 GA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보험사에 부담이 가중되는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GA가 보험사

에 갑질한다는 말이 영업 현장에서 많이 나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손보사와 만났다"며 "금융위·보험연구원이 협의해 오는 11월경 공청회를 가질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서 대형 GA 등이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가중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 대리점의 구축성 보험계약(꺾기), 대형 GA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 정도가 일정수준 초과시 업무정지 이상으로 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지난 8월 보험연구원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및 GA 규율 강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GA 대표는 "시책 위주가 아닌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공정거래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며 "GA를 위한 제도에 GA의 의견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구기 기자 kkk@

www.mediatong.com

포트폴리오인재관

이제 스킬과 이력서, 포트폴리오까지 한 눈에 확인하세요!

기업PR관

미디어 기업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방송가맛집

우리회사, 내가 꿈꾸는 직장의 맛집을 소개합니다.

교육기관 인재정보

우리 교육기관의 우수 인재를 소개합니다.

이제 미디어통을 스마트폰에서 만나세요! 미디어통 앱 다운로드

고객센터 02)783-1580 | helpdesk@mediatong.com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주)미디어네이티브

“中 시장 지켜라” 삼성전자 정면돌파

중국 R&D 직원 모집...스마트TV 개발 등 핵심업무 유니온페이와 협업...中 모바일 결제 시장 뛰어들어 샤오미에 휴대폰 1위 내줘...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을 수성하기 위해 인력 보강부터 신사업 추진까지 '정면돌파' 카드를 꺼내 들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국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8일까지 삼성전자 중국 R&D센터 직원을 모집 중이다. 분야는 스마트TV 개발, 타이젠 프레임워크 개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개발, 신제품 개발 등으로 전략 핵심부문에 현지 인력 채용에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대부분 석사 학위 이상이나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를 자격 조건으로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러시아 등 해외 지역에서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 중이다. 현지 시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역마다 R&D센터를 설립한 것. 이 가운데 삼성전자 중국 R&D센터 채용이 이목을 끄는 배경에는 최근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삼성의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 중국에서만 40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년보다 12조원이

상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중국 현지 시장 수성은 물론, 중국업체와의 글로벌 경쟁에서 최근 과거와 다른 양상이 펼쳐지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이끈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전략 마케팅 담당 사장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을 방문한 것도 중국 현지 시장을 더욱 더 챙기기 위한 발걸음으로 분석되고 있다.

샤오미, 레노버, 화웨이 등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영향력이 내수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만큼 전략적 태세를 갖춰 나가고 있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중국 휴대폰 시장에서 현지 업체인 샤오미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휴대폰 저가 시장에서 역시 중국 업체인 레노버에게 1위 자리를 빼앗겼다.

이 같은 중국 시장 위기에 중국 R&D센터 채용은 인재풀을 확대하고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나아가 삼성전자는 200조원 규모의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중국 국영 카드사인 유니온페이와 협업해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제공키로 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지난해 210조원으로, 2011년 12조원, 2012년 24조원에 비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전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삼성의 행보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삼성이 중국 시장에서 지금보다 입지를 다진다면 부품사들을 비롯해 국내 전자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수입차 부품 가격 비교하고 사세요”

‘비 마이 카’ 서초동에 셀렉숍 오픈 온라인 ‘카스테라’도 서비스 확대

수입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하이마트처럼 한 눈에 차량과 부품 가격을 비교·구매할 수 있는 곳이 등장해 화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입차 장기렌트 전문업체인 ‘비 마이 카’는 이달 17일 서울 서초동에 대형 셀렉숍을 오픈하고 다양한 수입차 브랜드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 가격 등을 비교해 판매할 계획이다.

셀렉숍은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판매하는 가게를 말한다. 수입차 셀렉숍은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입차를 쉽게 비교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 마이 카’는 이미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수입될 예정인 차량 외에도 소비자가 원하는 브랜드의 모델을 즉시 파악해 수입 가능 여부 확인 및 수입 대행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은자산운용, 하나은행, 신한은행, 신한캐피탈, 메리

크캐피탈, 도이치모터스 등 금융업계와 연계해 딜러 및 차량구입프로그램(리스·렌탈 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이다.

조영탁 비 마이 카 대표는 “수입차 구매는 할부, 리스, 렌탈과 같은 금융상품과 연계된 상품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종합 자동차 금융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수입차 부품의 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도 등장했다. 지에이엠은 국내 처음으로 수입차부품 가격비교 사이트 ‘카스테라’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에이엠은 현재 총 17개 브랜드 약 300만개의 부품정보(대체부품 포함)를 한 곳에 통합해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검색된 부품은 국내센터는 물론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실시간으로 수집돼 한 눈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지에이엠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수입차 부품 시장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과 더불어 오프라인에서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은자산운용, 하나은행, 신한은행, 신한캐피탈, 메리

권태성 기자 tskwon@

5대그룹 영업이익 5.1% ↓ 올해 72조9700억 전망

국내 5대 그룹의 올해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지난해보다 4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예측됐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 상장 계열사 중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가 나온 기업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의 합산은 72조97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제 영업이익의 76조8600억원보다 약 3조9000억원(5.1%) 줄었다.

그룹별로 삼성의 상장 계열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의 예상치는 32조69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증권사들의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의 평균 예상치는 29조320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의 연간 영업이익의 합산 전망치는 18조11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6% 늘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제철(71.5%)과 현대건설(31.0%)이 그룹 전체의 영업이익을 끌어올렸지만, 환율 악재로 인한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이 부진했다. 현대차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6% 줄어든 8조1000억원, 기아차는 6.9% 감소한 2조96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장효진 기자 js62@



신세계백화점, 벤 아이네와 콜라보

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1일까지 세계적인 그래피티 거장 벤 아이네(Ben Eine)의 '러브 잇(LOVE IT)' 그래피티를 매장 연출, 광고, 소품 등에 활용하고, 총 76종에 달하는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콜라보레이션 상품은 패션·생활 등 55개 브랜드와 협력해 출시됐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벤 아이네 콜라보레이션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LS전선 강원도 동해공장 가보니

50km 해저케이블 번쩍 들어 배 위로

핵심기술 '턴테이블' 자체 제작 시장점유율 내년 10%로 확대

국내 유일의 해저케이블 공장인 LS전선 강원도 동해공장. 지난 12일 이곳에서는 카타르로 운반될 50km에 달하는 해저케이블을 동해항의 배로 선적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LS전선은 2012년 국내 최대 규모인 4억3500만 달러 상당의 카타르 해저케이블 사업을 수주하며 해저케이블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성인 카를 훌쩍 넘기는 육중한 설비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설비는 바로 공장 안 해저케이블을 공장에서 400m 정도 떨어진 동해항까지 옮기는 '턴테이블(Turn Table)'이다. 턴테이블 설비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해저케이블 사업의 핵심이다.

여상철 동해지원팀장은 “설비 구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꾸준한 연구개발(R&D)을 통해 순수 국내 기술로 세계 최대의 턴테이블 설비를 제작,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출액의 4%를 R&D에 투자하고 있다. 그 결과 유럽과 일본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해저케이블 시장에서



50km의 해저케이블이 LS전선의 동해 해저케이블 공장에서 동해항 배로 선적되고 있다. 사진제공 LS전선

국내 최초로 중동, 유럽, 남미에서 잇달아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높이 약 2m, 직경 20m 이상의 대형 턴테이블은 1분에 5~10m의 속도로 50km의 해저케이블을 동해항의 배로 운반하고 있었다. 해저케이블은 턴테이블과 턴테이블 위의 ‘댕 웨이(Dang Way; 해저케이블 운반 통로)’를 거쳐 배 위의 턴테이블로 옮겨진다.

공장 투어를 마친 뒤 해저케이블 선적이 이뤄지고 있는 동해항으로 향했다. 길이 147m, 폭 138m의 대형 운송선에는 공장 안의 턴테이블과 같은 크기와 형

태의 턴테이블 두 개가 설치돼 있었다. 한 쪽 턴테이블에는 이미 선적을 마친 50km의 해저케이블이 감겨있었고, 다른 한 쪽 턴테이블에는 조금 전 공장 안에서 보았던 해저케이블 운반 작업이 한창이었다. 총 100km의 해저케이블은 이번 주 초 카타르로 떠날 예정이다.

LS전선은 앞으로 해저케이블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연수 LS전선 생산본부장 전무는 “현재 7~8% 수준인 세계 해저케이블 시장점유율을 내년에는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gujiy@



닛산 ‘캐시카이’ 사전예약

한국닛산은 15일부터 전국 닛산 공식 전시장을 통해 자사의 첫 번째 디젤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인 캐시카이의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캐시카이는 디젤 라인업의 격전지로 평가받는 유럽 SUV 시장에서 1위를 기록 중인 모델이다. 국내에서는 실내·외 디자인과 파워트레인을 개선된 2세대 모델이 출시된다.

캐시카이는 1.6ℓ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에 닛산의 엑스트라니 CVT(Xtronic CVT)가 탑재된 5인승 SUV다. 특히 도심형 SUV 모델답게 낮은 rpm 영역에서부터 최대 토크인 32.6kg·m가 발휘돼 중저속 구간이 많은 국내 도심 주행에 최적화됐다. 동급 최고 수준의 휠베이스(2645mm)와 변속 충격 없는 무단변속기의 조화도 역동적이면서도 편안한 주행감을 제공한다.

캐시카이의 출시 가격은 3200만~3900만원으로 동급모델 대비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에 사업차질 9000억

CJ 경영시계 멈추나

대한통운 물류터미널 확보 등 올해 투자계획 대부분 보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CJ그룹 경영시계가 사실상 멈췄다. 당장 사업에 차질을 빚는 사업 규모만 9000억원에 달한다. 총수가 자리를 오래 비우게 되면 그룹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넘어 위기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재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지난 12일, 이체욱 CJ 부회장은 그룹 본사에 지주사 임원 및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불러모았다. 이날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부회장은 “무엇보다 이재현 회장의 건강이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며 “총수 부재 장기화에 따른 조직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CEO들이 현장에서 잘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일단 각 계열사별 전문경영인이 책임 경영을 맡고, 그룹 주요 현안은 그룹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비상경영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수 공백이 길어지면 경영 차질 수준을 넘어 침체 상황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져가고 있다. CJ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이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라면서도 “신사업 진출이

계명사	사업 내용
CJ대한통운	충청 물류터미널
CJ CGV	글로벌 극장 투자
CJ오쇼핑	해외 인수합병
CJ제일제당	베트남·중국 생물자원협력 인수합병
CJ푸드빌	한식 레스토랑 ‘비비고’ 출점

* 출처: CJ그룹, 업계

나 신규 투자 같은 굵직한 사업은 오너가 직접 추진하지 않으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 우려가 크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올해 계획했던 투자액 1조3000억원 중 35%에 해당하는 4800억원 규모 사업이 상반기 중에만 보류됐다. CJ대한통운의 중부권 물류터미널 확보 사업, CJ CGV의 해외 극장 사업 투자, CJ오쇼핑의 해외 사업 확대 등 굵직한 현안이 포함됐다.

CJ대한통운이 1조원대 미국·인도 물류업체를 인수하는 방안이 협상이 완전히 중단됐으며, CJ프레시웨이도 미국과 베트남 현지 유통망 인수권 진행을 멈췄다.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 “이재현 회장에 실형 선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재현 회장이 이식받은 신장 수명은 10년 정도인데, 그 사이 거부반응이 나타나 더 단축됐을 것이므로 이 회장은 사실상 10년 미만 시한부 생을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다람 기자 zing@

파스타보다 밥... 대기업 한식뷔페 ‘군침’

CJ푸드빌 ‘계절밥상’ 5호점 오픈 이랜드 ‘자연별곡’ 전국 점포 확대 신세계·롯데도 사업 진출 나서

한식 뷔페 전경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국내 외식시장이 패밀리 레스토랑 중심에서 한식 뷔페로 재편되면서 국내 대표 유통그룹들이 시장 선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한식 뷔페 시장은 CJ그룹과 이랜드그룹이 양분 중이다. CJ그룹 계열사 CJ푸드빌은 지난해 7월 웰빙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하고 한식 뷔페 ‘계절밥상’을 론칭했다.

오픈 10개월 만에 누적 고객 60만명을 돌파한 세를 몰아 최근 계절밥상 5호점을 서울 송파구 평화의 광장에 오픈했다. 약

220여 규모의 평화의 광장은 송파와 강동을 아우르는 상권에 위치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 도심과 수도권 지역에 출점을 계속해 더욱 많은 고객들이 신선한 제철 한식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랜드그룹은 지난 4월 한식 뷔페 ‘자연별곡’을 론칭하면서 CJ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계절밥상이 수도권 매장에 집중한다면 이랜드의 자연별곡은 전국적으로 점포를 확대하고 있다. 이랜드 측은 분당 미금과 2호점인 서울 목동점의 일 평균 방문객이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CJ와 이랜드가 선전한 한식 뷔페 시장에 ‘유통공룡’ 신세계와 롯데도 군침을 흘리고 있다. 특히 신세계는 최근 한식 뷔페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신세계푸드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에 한식뷔페 레스토랑 1호점을 열고, 한 판 승부를 예고했다.

이선애 기자 isa@

번호이동 시들... 움츠린 이통시장

연휴·영업정지에도 보조금 안 풀어... 하루평균 1만 건 이하 내달 시행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당분간 빙하기 예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최근 휴대폰 매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회사원 김 씨는 2년간의 약정 기간이 끝나 새 휴대폰을 장만하려고 지난 주말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대리점을 찾았다.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와 긴 추석 연휴가 겹쳐 내신 보조금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매장 담당자는 보조금이 없으며 다음달까지 기다려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때 공짜폰이 나돌던 온라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연휴와 영업정지 기간에 휴대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으레 보조금을 많이 주는 업체의 이른바 ‘좌표(주소)’를 묻고 알려주는 글들이 상했다. 하지만 이번달은 달랐다. 보조금이 언제 풀리지는 물어 보는 글들은 많았는데 비해, 보조금 대리점의 좌표는 더이상 없었다.

긴 추석연휴와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용했다. 소위 보조금 대란으로 인한 가입자들의 집단 반발이 이동 사태는 재연되지 않았다.

1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추석연휴를 포함한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이동 3사간 번호이동건수(일평균 제외)는 5만

9872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로는 9978건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과월 기준으로 삼는 2만 4000건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7-8월의 일일 평균 번호이동건수는 대략 1만 6000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통사별로 보면 추석 연휴 직전 7일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는 2693명 순증했다, KT도 1757명 순증했다. 11일부터 영업정지에 돌입한 SK텔레콤은 4450명 순감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첫날 5008명 순감했다.

일반적으로 번호이동 건수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규모와 비례한다. 시중에 보조금이 많이 뿌려지면 번호이동 건수가 많고 반대로 보조금이 적을수록 그만큼 번호이동 건수도 적다. 긴 연휴기간과 업계 1위

인 SK텔레콤의 영업정지(11-17일)가 겹쳤음에도 이동사들이 보조금을 풀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선 이같은 시장 빙하기 현상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내달 시행될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등 시장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이동사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보조금을 풀진 않을 것”이라며 “이미 시장이 과포화된 상태에서 이동사들이 비통신 분야에서 기술과 서비스 발전에 힘을 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에도 마찬가지였다.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 하루 평균 번호이동건수가 가장 많은 날은 1만3190건에 그쳤다. 이 역시 정부가 시장 과월 지표로 삼는 2만4000건에 1만건 이상 적은 수치다. 김범근 기자 nova@



SKT, 인천아시아게임 스마트서비스 준비 완료

SK텔레콤은 제17회 인천아시아게임 개막을 앞두고 이번 대회를 역대 최고의 스마트대회로 만들기 위해 SNS를 주요 소통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아시아게임 주관 통신사인 SK텔레콤은 그동안 IT·통신·방송 등 전 영역에 걸쳐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시설에 대한 시범 운영을 마무리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KT, CEO 직속 고객최우선경영실 신설

황창규 KT회장이 고객최우선경영실을 황창규 CEO 직속으로 신설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CEO 직속으로 고객최우선경영담당, 고객경험품질팀, 고객가치제안팀 등 7개팀으로 구성된 고객최우선경영실을 신설했다.

이는 황 회장이 지난 5월 구축한 고객가치혁신CFT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실장에는 김철수 전 고객가치혁신CFT장이 임명됐다.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황 회장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정유 기자 thec98@

LG U+, 협력사 임직원 전용 복지몰 오픈

LG유플러스는 중소기업사 직원이 LG 계열사 상품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협력사 임직원 전용 복지몰’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용 복지몰은 LG 계열사의 가전제품,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이는 LG유플러스 직원 복지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협력사 직원은 부여 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하면 구매가 가능

하다. 이기형 LG유플러스 동반성장추진팀장은 “이번 복지몰 오픈으로 LG유플러스 임직원들에게만 제공되던 복지혜택을 협력사 임직원에게까지 확대해 상생경영을 실천하게 됐다”라며 “이는 매우 획기적인 시도로 앞으로도 중소기업사와의 동반성장 과 상생경영의 모범사례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脫 ‘밴드’ 게임, ‘카카오’서 잘나가네

라인 국내 이용자 저조... ‘역진!맛탱탁구’ ‘돌리돌리푸’ 등 재출시 인기



밴드게임으로 서비스됐던 모바일 퍼즐게임들이 카카오 게임하기로 출시되며 플랫폼 효과로 톱톡히 누리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with BAND로 출시됐던 ‘역진! 맛탱탁구’, ‘돌리돌리푸’ 등이 ‘for kakao’로 출시되며 인기를 얻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밴드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라바링크도 카카오’ 출시를 앞두고 있어 ‘탈(脫)밴드’ 게임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월 초 ‘퍼즐푸’에서 이름을 바꾸고 카카오에 출시된 ‘돌리돌리푸’는 디즈니의 인기 애니메이션 ‘곰돌이 푸’를 원작으로 하는 게임으로 재출시 되자마자 인기 게임 순위권에 올랐다. 돌리돌리푸는 15일 현재 구글플레이 인기 무료게임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또한 역진! 맛탱탁구는 지난 8월 말 카카오 게임하기에서 재출시 이후 흥행 열풍을 벗겨주며 이기고 있다. 밴드 게임 시절에는 최고 순위가 30위권에

불과했지만 14일 현재 구글플레이 인기 무료 게임 6위, 매출 11위를 기록 중이다.

밴드 게임은 출시초기 모바일게임 유통장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카카오톡 게임하기의 대항마가 될 것이라며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밴드의 게임 플랫폼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국내 이용률이 국외에 비해 저조함에 따라 당분간 국내 모바일 게임 플랫폼 시장은 카카오톡의 독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10~20대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카카오톡에 비해 밴드의 이용자층이 30~40대 장년층이라는 점이 밴드의 단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현현 기자 yhssoo@

마곡 미르웰 플러스 그린생활시설 모집공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과 [2014 - 건축과 - 분양권 - 2호 (2014.09.15)로 분양신청]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2014-건축과-신축허가-205] ■ 분양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동동 마곡2차 업무지구 C14-4, C14-5(별첨지번)소재는 추후 변경 가능함
- 대지면적: 2,453.00㎡ ■ 연면적: 18,671.38㎡ ■ 용도: 지하층~지하층(주차장, 기계, 전기실 등), 지하층~지상2층(근린생활시설), 지상3층~지상4층(오피스텔)
- 공급규모: 근린생활시설(부속용도외) 공급면적 포함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유형	호수	공급 면적	세탁물 공급면적		주차장 /기타	계약면적	대지면적	분양금액	대차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약금						잔금	
			공급면적	소계								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0%		
근린 생활 시설	E101	1	1,054.04	27.39	132.43	87.75	214.98	31.80	5,366,600.000	192,006,212	313,267,080	31,326,708	53,660,000	53,660,000	53,660,000	53,660,000	53,660,000	53,660,000	268,300,000
	E102	1	69.06	17.46	84.42	52.11	136.53	21.27	338,900.000	117,690,998	192,018,20	19,201,82	32,890,000	32,890,000	32,890,000	32,890,000	32,890,000	164,450,000	
	E103	1	25.41	65.30	316.27	195.69	572.63	76.10	1,369,800.000	500,876,438	877,203,240	87,720,324	139,980,000	139,980,000	139,980,000	139,980,000	139,980,000	699,900,000	
	E104	1	242.74	63.29	330.03	198.97	494.98	73.48	1,351,500.000	483,933,733	789,026,700	78,902,670	78,900,000	138,150,000	138,150,000	138,150,000	138,150,000	675,750,000	
	E105	1	24.90	63.05	304.85	198.18	493.03	73.19	1,346,300.000	481,733,096	785,969,940	78,596,994	134,630,000	134,630,000	134,630,000	134,630,000	134,630,000	673,150,000	
	F01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827,500.000	296,096,050	483,094,500	48,309,450	82,750,000	82,750,000	82,750,000	82,750,000	82,750,000	433,750,000	
	F02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800,300.000	288,363,346	467,275,140	46,727,514	80,030,000	80,030,000	80,030,000	80,030,000	80,030,000	400,150,000	
	F03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786,800.000	281,532,776	459,333,840	45,933,840	78,680,000	78,680,000	78,680,000	78,680,000	78,680,000	393,400,000	
	F04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798,900.000	281,532,776	459,333,840	45,933,840	78,680,000	78,680,000	78,680,000	78,680,000	78,680,000	393,400,000	
	F05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800,300.000	288,363,346	467,275,140	46,727,514	80,030,000	80,030,000	80,030,000	80,030,000	80,030,000	400,150,000	
	F06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908,900.000	325,222,598	530,675,820	53,067,820	90,890,000	90,890,000	90,890,000	90,890,000	90,890,000	454,450,000	
	F07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908,900.000	325,222,598	530,675,820	53,067,820	90,890,000	90,890,000	90,890,000	90,890,000	90,890,000	454,450,000	
	F08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800,300.000	288,363,346	467,275,140	46,727,514	80,030,000	80,030,000	80,030,000	80,030,000	80,030,000	400,150,000	
	F09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773,200.000	276,696,424	451,384,160	45,138,416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386,600,000	
	F10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773,200.000	276,696,424	451,384,160	45,138,416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386,600,000	
	F11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773,200.000	276,696,424	451,384,160	45,138,416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77,320,000	386,600,000	
	F12	1	41.42	10.80	52.22	32.24	84.46	12.54	827,500.000	296,096,050	483,094,500	48,309,450	82,750,000	82,750,000	82,750,000	82,750,000	82,750,000	433,750,000	
	F13	1	42.00	10.95	52.96	32.69	85.64	12.71	894,100.000	319,629,892	521,975,580	52,197,558	89,410,000	89,410,000	89,410,000	89,410,000	89,410,000	447,050,000	
	F14	1	44.00	11.47	56.47	34.24	88.72	13.32	994,300.000	358,780,426	580,472,340	58,047,234	99,430,000	99,430,000	99,430,000	99,430,000	99,430,000	497,150,000	
	F15	1	49.00	12.78	61.78	38.13	99.91	14.93	1,137,300.000	396,214,086	648,441,740	64,844,174	113,730,000	113,730,000	113,730,000	113,730,000	113,730,000	553,650,000	
F16	1	69.00	17.21	85.21	51.39	130.67	19.28	1,448,200.000	518,114,824	846,459,160	84,645,916	144,820,000	144,820,000	144,820,000	144,820,000	144,820,000	724,000,000		
F17	1	67.50	17.60	85.10	52.53	133.63	19.43	1,327,400.000	463,408,268	698,118,120	69,811,812	122,740,000	122,740,000	122,740,000	122,740,000	122,740,000	653,000,000		
F18	1	58.50	15.25	73.75	45.53	119.28	17.71	977,100.000	349,625,922	570,433,980	57,043,980	97,710,000	97,710,000	97,710,000	97,710,000	97,710,000	488,550,000		
F19	1	58.50	15.25	73.75	45.53	119.28	17.71	1,076,400.000	363,330,428	592,790,240	59,279,024	105,540,000	105,540,000	105,540,000	105,540,000	105,540,000	507,700,000		
F20	1	58.50	15.25	73.75	45.53	119.28	17.71	1,168,700.000	418,184,234	668,287,060	66,828,706	116,870,000	116,870,000	116,870,000	116,870,000	116,870,000	584,350,000		
F21	1	127.53	33.25	163.78	99.25	203.03	38.60	1,420,100.000	508,140,827	829,054,380	82,905,438	142,010,000	142,010,000	142,010,000	142,010,000	142,010,000	710,050,000		
F22	1	158.55	42.71	194.26	123.00	272.77	47.24	1,659,400.000	592,693,048	967,006,320	96,700,632	165,940,000	165,940,000	165,940,000	165,940,000	165,940,000	828,200,000		
F23	1	133.99	33.54	162.44	94.79	206.23	38.62	1,298,000.000	453,716,763	740,258,400	74,025,840	129,800,000	129,800,000	129,800,000	129,800,000	129,800,000	634,000,000		
F24	1	198.18	49.98	222.16	140.23	307.39	54.54	1,888,400.000	675,707,288	1,102,447,320	110,244,732	188,840,000	188,840,000	188,840,000	188,840,000	188,840,000	944,200,000		
F25	1	116.87	29.24	122.74	73.49	160.23	33.48	1,178,900.000	401,933,956	671,930,040	67,193,040	117,890,000	117,890,000	117,890,000	117,890,000	117,890,000	607,900,000		
F26	1	91.02	23.74	114.75	73.84	160.59	27.75	953,900.000	341,334,498	556,898,820	55,688,820	95,390,000	95,390,000	95,390,000	95,390,000	95,390,000	418,950,000		
F27	1	68.68	17.91	88.59	53.45	118.04	21.76	719,800.000	257,558,831	420,219,240	42,021,924	71,980,000	71,980,000	71,980,000	71,980,000	71,980,000	359,900,000		
F28	1	29.37	58.42	272.79	188.39	441.99	65.10	2,287,600.000	811,382,637	1,323,824,980	132,382,498	228,760,000	228,760,000	228,760,000	228,760,000	228,760,000	1,133,800,000		

- 공통사항
 - 1.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신청되었으며, 상기 공급금액은 각 호실별, 층에 따라 분담금이 다르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상기 공급금액은 분담금에 포함되며, 유형별 공히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기타 세공공과금이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3. 상기 호실별 계약면적에는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및 건축물비설(기계실, 전기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호실별은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및 건축물비설(기계실, 전기실 등)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랜트 한류’ 선봉에 포스코·삼성ENG

포스코 나이지리아 가스화전 1조2000억원 단일수주 최대
삼성엔지니어링 8000만달러 멕시코 정유플랜트 설계 따내
국내 불황 해외서 돌파구... 수주 목표 700억달러 ‘청신호’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 부문에서 잇달아 대형 수주 낭보를 전하고 있다. 침체된 국내 업황 속에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이자 꾸준히 플랜트시장을 선점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나이지리아 가스화력발전소 사업을, 삼성엔지니어링은 멕시코 정유플랜트 사업을 각각 수주했다. 국내 건설업계의 활발한 수주 성과로 올해 목표인 해외건설 수주 700억 달러 달성에도 힘을 실고 있다.



삼성ENG 멕시코 정유 플랜트 현장 위치도.

남쪽으로 300km가량 떨어진 에보니주에 발전용량 2500MW 규모의 가스화력발전소를 세우는 공사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본사가 해외에서 수주한 단일 에너지 플랜트 공사로는 최대 규모이자 아프리카 플랜트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11일(현지시간)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페멕스가 발주한 8000만 달러 규모의 초저황 디젤유 생산 프로젝트



포스코건설은 지난 12일 인천 송도 사옥에서 나이지리아 민간발전회사인 에보니IPP와 에보니IPP 가스화력발전 공사에 대한 EPC 계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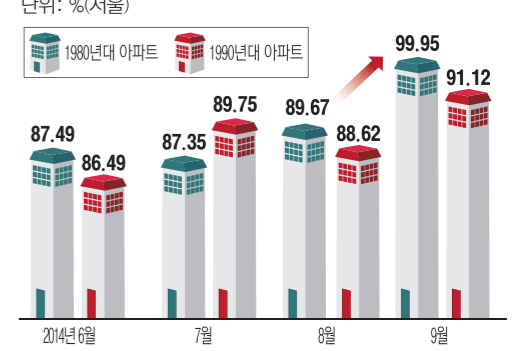
(ULSD) 상설 설계를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멕시코시티 북서쪽 살라망카 지역에 일일 생산 3만8000배럴 규모의 초저황 디젤유 생산 플랜트를 신설하고 기존 플랜트 설비를 일일 생산 5만3000배럴 규모로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1단계(상설설계, 일부 기자재 발주)와 2단계(잔여 상설설계, 조달, 공사, 시운전)로 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 사업을 수주한 삼성엔지니어링은 설계기간에 공사비를 산정하는 O&E 방식

으로 내년 9월까지 상설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1단계 사업 수행자로 선정돼 2단계 사업 수주도 유력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1999년 멕시코 시장 진출 이후 페멕스와 꾸준한 신뢰를 쌓아 이번에 4번째로 인연을 맺게 됐다. 페멕스가 기존 정유공장의 현대화 프로젝트 투자를 계획 중이라 연계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jippo@

‘혹시 재건축?’ 노후 아파트 인기

9·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급등하고 있다.

준공시기별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2일 부동산경제정보사이트 부동산대인이 9월(11일 기준) 낙찰된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제외) 671개를 소유권보존등기일 기준으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1980년대 준공 아파트의 9월 낙찰건은 모두 25개, 낙찰가율은 95.53%로 집계됐다.

1980년대 준공 경매낙찰가율 95%

한달새 7%p 증... 5년 만에 최고

“9·1대책 영향...사업성 꼼꼼히 체크”

지난달(100%, 88.59%)보다 6.94%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1980년대 준공 아파트의 월간 경매 낙찰가율이 95%를 넘은 것은 2009년 9월 이후 처음이다. 9월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91.56%로 이보다 낮았다.서울의 1980년대 준공 아파트는 이달 들어 총 6건이 낙찰된 가운데 낙찰가율은 99.95%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낙찰가율(89.96%)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은 것이다.

11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입찰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의 한 아파트 경매에는 모두 32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6억5000만원)의 106%가 넘는 6억918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1984년 11월 입주해 올해로 준공 30년째를 맞아 제도 개선 후에는 곧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부동산대인 정대홍 팀장은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일반 거래시장뿐만 아니라 경매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며 “다만 실제 재건축 가능 여부가 중요한 만큼 대지비, 단지 규모 등 사업성을 따져보고 입찰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영민 기자 kwan@

주목! 이곳 롯데건설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

배산임수 ‘풍수 프리미엄’ 입소문

실속형 면적 260가구·403실 일반분양
단지 바로앞에 용인정전철 환승역 입구
앞은 오산천 뒤엔 산... 주변엔 공원까지



나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바로 앞에는 오산천이, 뒤에는 야산이 있어 배산임수형의 쾌적한 주거입지를 갖췄다. 주변에 어린이 공원이거나 구갈공원, 강남공원이 인접해 있고 수원CC, 남부CC 등 골프장이 가까워 친환경적이다.

롯데건설은 이달 경기 용인시 기흥역세권 5100가구 규모의 계획복합도시 내 첫 아파트인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를 분양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는 지하 4층-지상 38층, 3개동으로 구성되며 전용 84㎡ 위주의 3면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 260가구와 전용 22-26㎡의 소형 오피스텔 403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최초 분양 물량인 데다 용인시에서 가장 높은 38층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용인시의 대표 주거-상업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의 신형 랜드마크형 미니 신도시로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실용자뿐만 아니라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서울 왕십리까지 연결되는 분당선과 용인 경전철 환승역인 기흥역 5번 출구가 단지에 붙어 있는 초역세권이다. 기흥-정자-강남으로 이어지는 전철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역까지 4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한편 롯데건설은 오는 18일 죽전 신세계백화점 앞에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연락처
9/15 (월)	발표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수원호매실A8(국민임대) 1순위 월평균소득50%이하	1600-1004
				반곡동	강원혁신A-1블록(국민임대) 1.2,3순위 29㎡	1600-1004
				세종	세종시	새롬동
	계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세종금성백조메이저M9블록	1899-2006
				내곡동	강북수유(장기전세) (~9/18)	1600-3456
				내곡동	내곡지구2단지(장기전세) (~9/18)	1600-3456
9/16 (화)	발표	경기	용인시	역북동	내곡지구6단지(장기전세) (~9/18)	1600-3456
				역북동	은평뉴타운기자촌11(장기전세) (~9/18)	1600-3456
				호매실동	수원호매실A8(국민임대) 2순위 월평균소득50%이하	1600-1004
	계약	전남	나주시	금전면	용인역북1지구A2블록우남퍼스트빌	1588-8034
				안림동	용인역북1지구A2블록우남퍼스트빌	1588-8034
				안림동	광주전남혁신A-3(국민임대) (~9/17)	1600-1004
9/17 (수)	발표	충북	충주시	안림동	충주안림LH천년나무1단지(공공임대) (~9/18)	1600-1004
				호매실동	수원호매실A8(국민임대) 3순위 월평균소득50%이하	1600-1004
				예천동	e편한세상서산예천 1순위	041681-9100
	계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명지국제신도시B6블록호반베르디움2차	051271-8855
				권선동	수원PARK시티4차(7BL) (~9/19)	031232-1700
				동탄면	화성동탄2신도시A24(국민임대) (~9/19)	031250-8168
9/18 (목)	발표	경기	화성시	마곡동	마곡역스나인	1670-8892
				마곡동	기흥역롯데캐슬레이시티	031283-6868
				예천동	e편한세상서산예천 3순위	041681-9100
	계약	경기	화성시	동탄면	화성동탄2신도시(66BL)	1600-1004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차)	1600-9099
				평성동	평택브라운스톤원프리자	02553-9000
9/19 (금)	발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금강펜테리움더스퀘어	1899-8960
				반곡동	원주혁신2중층S-클래스프리디움	1644-5331
				산신동	구미교리e편한세상	054462-5511
	계약	충남	천안시	불당동	천안불당3차호반베르디움	022007-7000
				새롬동	세종캐슬&파밀리에	1899-9333
				세종시	세종시	세종시

* (주1) *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 자료=부동산114

9월 셋째 주 분양시장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청약 일정을 미뤄 왔던 사업장들의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 이 풍성하게 들려 온다. 전국 15개 사업장이 모델하우스를 열고 청약자를 맞는다. 그리고 △충남 서산 'e편한세상서산예천' 936 가구와 공공임대 물량 1625가구 등 3187가구가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서울 강서 '마곡역스나인' △부산 부산진구 '금강펜테리움더스퀘어' 등이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PATIO 9

Banquet & Convention

파티오나인

공연 · 연주회 · 전시 · 런칭쇼 · 세미나 · 웨딩

총면적 12,000 제곱미터의 파티오나인은 50석부터 1,000석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세미나에서 패션쇼, 박람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형태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 Performance
- Concert
- Exhibition
- Launch show
- Convention
- Seminar and
- Wedding

연주회 및 공연

두타 패션쇼

삼성전자 신제품 전시

불가리 향수 런칭쇼

세미나 및 포럼

국내 최상급의 복합문화공간 “파티오나인”

예약 : T. 02-517-7080~1, 02-517-7070 / www.patio9.com / 서울 강남구 논현동 66-24 파티오나인

애매모호한 '상당기간'... 美 연준에 쏠린 눈

(초저금리 유지)

글로벌 리포트

美 뉴욕에 여성전용 택시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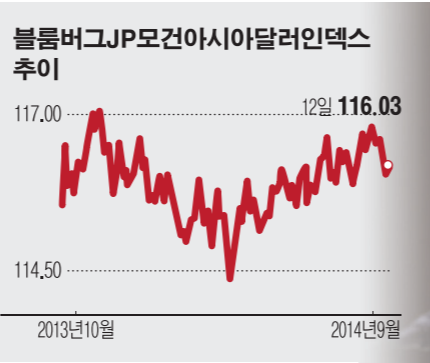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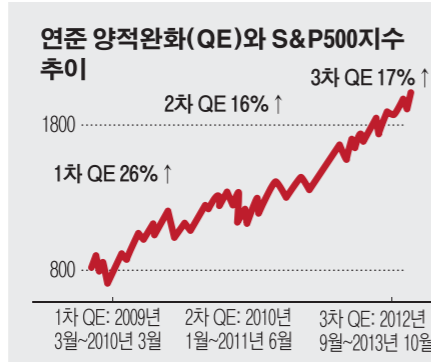
그동안 양적완화 타고 글로벌 금융시장 강세 최근 금리인상 우려 약세

인도-태국 등 통화 급락 투자 '엑소더스' 가시화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 쏠려 있다. 최근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가 퍼지면서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지속한다'라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문 내용의 변경 여부가 하반기 주식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시장은 연준의 양적완화가 오는 10월 끝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제는 금리인상 시기다. 연준이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긴축으로 접어들 경우 시장이 받을 충격은 가능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월가의 중론이다.

그동안 뉴욕증시는 연준 주도의 장세였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투자기관 BMO캐피탈마켓에 따르면 연준이 1차 양적완화(QE)를 실시했던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뉴욕증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6% 급등했다.

S&P500지수는 2차 QE(2010년 11월~2011년 6월) 시기에 16.1%, 3차 QE가 시작된 2012년 9월 이후에는 17% 넘게 올랐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말한 것처럼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QE를 통해 연준이 시장에 공급한 자금은 지금까지 4조 달러가 넘는다. 연준이 긴축 고삐를 조이면, 산술적으로 이 같은 전통적인 돈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던 그린하우스 BTIG 수석 투자전략가는 14일(현지시간) 투자전문매체마켓워치와 가진 인터뷰에서 "9월 FOMC 성명에서도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는 살아남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강세 전망 이후 주식시장에는 약세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신호가 증시에 약재가 되는 이유도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주말 8월 소매판매가 0.6% 증가하는 등 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S&P500지수가 주간 기준 6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서는 등 뉴욕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피터 안코프스키스 오코브룩인베스트먼트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주요 지표는 경제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한다"라면서 "시장에는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인상을 앞당길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2015년 7월까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목표금리를 0.5%로 인상할 가능성은 지난주 60% 이상으로 높아졌다. 지난 8월 말 이 같은 확률은 50%대에서 움직였다. 연준은 오는 16일부터 이를 통한 FOMC

를 개최한다. 연준은 현 0-0.25%인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채권매입 규모를 100억 달러 축소할 전망이다.

FOMC가 끝나면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경제 및 통화정책과 관련해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옐런 의장은 지난달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준의 연례 심포지엄에서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조기 금리 인상을 논의할 수 있지만 고용시장의 불안은 여전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시아 통화는 이미 연준 긴축 불안에 요동치고 있다. 아시아 각국 통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를 종합한 블룸버그JP모건아시아달러인덱스는 지난주에 0.4% 하락해 지난 4월 25일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다. 달러화에 대해 인도 루피화가 0.4%, 태국 바트화가 0.7% 각각 떨어졌다. 한국 원화 하락폭은 1.1%에 달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높은 금리를 추종하는 투자자들이 아시아 자본시장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조짐이 보이면서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주 태국 채권시장에서 순유출된 자금은 4억9900만 달러에 달했다. 뉴욕=인태성 특파원 tsmim@

미국 뉴욕시에 여성전용 택시가 이번 주부터 등장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쉬라이즈(SheRides)'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쉬라이즈(SheRides)'라는 여성전용 택시 서비스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쉬라이즈는 콜택시 서비스로 여성고객과 여성택시기사를 연결해준다. 이 회사에 소속된 기사는 전부 여성이다. 고객이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 의사를 전하면 분홍색 머플러를 두른 기사가 온다.

쉬라이즈의 스티라 마테오 대표는 남성 택시기사를 불편하게 여기는 여성들이 있어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시 택시 업계에서는 고급 콜택시인 리무진 서비스에 종사하는 택시기사가 5만 9999명이다. 이 가운데 5%인 2592명이 여성이다.

많은 뉴욕시 여성들은 여성전용 택시의 등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차별 서비스'라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G20, 대형은행 자기자본비율 강화

세계 주요 20개국(G20)이 글로벌 대형은행의 자본 규제를 강화해 은행 대출 등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최저비율을 현재의 두 배 가까운 16~20%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14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아이 신문이 보도했다.

G20을 중심으로 각국 금융당국이 참가하는 금융안정이사회의 이번 주초부터 최종조정에 착수해 오는 20-21일 중간보고를 거쳐 11월 호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합의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아이 신문은 이 같은 새 제도가 2019년 이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자기자본비율이 16~20%로 상향되면 세 번째 규제 강화가 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가 은행의 자기자본을 늘려 경영위기에 빠지더라도 세금 투입 없이 파산을 피하려는 것이지만 때문에 대출 등이 억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P, 그리스 신용등급 'B'로 상향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2일(현지시간)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종전 'B-'에서 '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S&P는 그리스 신용등급이 여전히 투자부적격(프크) 등급이지만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스는 2010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뇌관'이라는 낙인이 찍혔으나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구제금융 지원을 통해 신용 여건을 개선해왔다. 그리스는 올 4월 4년 만에 국제 발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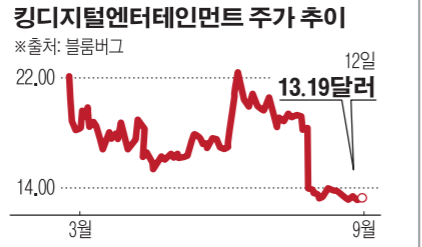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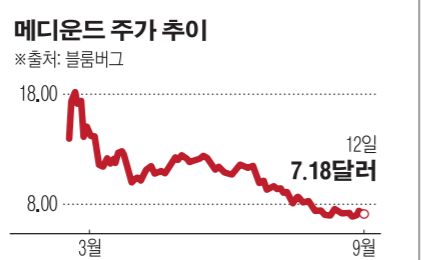


스코틀랜드 독립 편파 보도 항의
14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영국 공영방송 BBC 본사 앞에서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을 찬성하는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한 참가자가 눈과 입을 가리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BBC에 항의하고 있다. 오는 18일에 스코틀랜드의 영국 분리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시행될 예정이다. 글래스고/AFP연합뉴스

뉴욕상장 기대감 '알리바바' 글로벌 IPO시장 버블우려도

중국 최대 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이르면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데뷔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알리바바는 상장을 통해 최소 210억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대로라면 이는 페이스북이 세운 기술업체 최대 IPO라는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알리바바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올해 IPO 시장은 2000년 이후 가장 숨 가쁜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버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최근 미국 CNBC가 보도했



올 상장사 3분의1 주가 공모가 밑돌아... 첫 3개월간 부진 '메디온' 첫날 증가서 60%↓... '킹디지털' 이후 29% 급락

다. IPO 숫자는 늘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IPO로 인한 수익률은 올해 흔했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이 리터 플로리다대학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적자기업이 IPO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시장 조사업체 딜로이트에 따르면 올해 증시에 데뷔한 188개의 기업 중 3분의 1 가까이 공모가를 밑도는 주가를 기록했다.

특히 증시에 첫 데뷔한 주식의 첫 3개월간 평균 주가 상승률은 19%에 그쳐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36%를 기록한 지난 해는 물론 2012년(23%)에도 밑도는 상승폭이다.

캐슬린 스미스 르네상스캐피털 IPO 상장지수펀드(ETF) 매니저는 "알리바바와 같이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을 제외하고 고품가된 상장사 기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

치를 넘어 회사 가치를 쥐어짜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흐름은 바이오 종목 및 기술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바이오제약업체 메디온(MediWound)의 주가는 첫날 증가에서 60% 빠졌다. 모바일 게임 '캔디크러시 사가'로 유명한 게임 개발업체 킹디지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화려하게 증시에 데뷔했지만 상장 이후 29% 급락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대를 함몰에 받은 기업들이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자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리스크 선호 심리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인베스터플레이스 편집자 제프 리브스는 "투자자들은 특정한 매출이나 순이익의 구조를 가지지 못한 기업들에 투자하거나 블록버스터급 신약에 대한 당국의 허가 등 막대한 기대로 움직인다"고 꼬집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발로 가는 무동력차

14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레드 불 소프박스 레이스(Red Bull Soapbox Race)'의 참가자가 직접 만든 무동력 자동차로 경기에 임하고 있다. 이 대회는 아마추어 조립 자동차 경주대회로 참가자가 직접 만든 무동력 자동차로 일정 구간을 가장 빨리 통과하는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된다. 부카레스트/로이터연합뉴스

"中 반독점 조사남용, 美·中관계 악화"

제이콥 루 美재무장관 경고 "기업 지재권 가치 떨어뜨려"

미국정부가 최근 강도를 높인 중국의 외국 기업 때리기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이콥 루(사진)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 정부에 외국 기업과 관련한 반독점 조사 남용이 자칫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루 장관은 최근 중국의 왕양 부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최근 외국기업에 대한 집중 조사는 이들 기업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7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중·미 전략 경제대화에서도 미국 측이 지적한 문제다. 이 대화는 세계 2대 강국(G2)인 중국과 미국이 매년 양국의 현안과 글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중국의 반독점 및 가격 담합과 관련된 조사가 외국기업에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들 기업은 중국이 자유 시장 경제를 만들기보다는 자국 기업 감싸기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해당 조사가 불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반독점법을 6년 만에 강화해 관련 조사에 대한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마이크로소

프트(MS)와 반도체 제조업체 쉘컴에 대해 가격담합이나 잠재적인 반독점 활동 가능성 등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공상총국)은 이달 초 MS 측에 20일 안에 원도와 오피스 등 소프트웨어의 비호환성 및 기위 팔기(번들제), 공개정보 제한 등에서 비롯된 문제에 대해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2일에는 아우디와 크라이슬러에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3억1200만 위안(약 527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미국 측은 불만 표시에 왕 부총리는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중국 고위 관계자들은 정부가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소비자 권의 신장을 위해 반독점법을 강화에 나선 것일 뿐 외국 기업 때리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글로벌 맥주업계 M&A 전쟁 격화

글로벌 주류업계의 인수·합병(M&A) 전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SAB밀러는 네덜란드 소재 하이네켄 지분 50.1%를 보유한 데 카르발로 가문에 인수 제안을 했으나 퇴짜를 맞았다고 14일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SAB밀러가 하이네켄에 접근한 것은 세계 최대 주류업체인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가 자사를 사들일 가능성을 막기 위한 교육지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AB인베브 피인수설 'SAB밀러' 하이네켄에 인수제안 퇴짜맞아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하이네켄 대주주는 회사 매각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SAB밀러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네켄은 프리미엄 맥주브랜드 전략

이 소비자들에게 먹히면서 올 들어 주가가 21% 올라 현재 시가총액이 342억 유로(약 45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SAB밀러도 피인수 가능성이 제기된 지난 2월 이후 주가가 27% 뛰었다. AB인베브는 지난 10년간 코로나에서부터 버드와이저까지 맥주업체 인수에 약 1000억 달러를 썼다.

하이네켄 인수에 성공하면 SAB밀러는

25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추가할 수 있다.

맥주 비술리 핸드슨글로벌인베스터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SAB에 있어서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길은 하이네켄을 사는 것"이라며 "그러나 SAB는 자신의 사업을 높은 가격에 파는 것보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려는 하이네켄 경영진의 열망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산업의학 협진으로 종합케어 서비스”

장현석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장, 추계학술대회 “화상·사고 등 성형 필요한 다양한 환자 위해 노력”

‘정상’으로 돌아가자(Return to normal)

모든 미용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대미레)의 목표다. 14일 추계학술대회에서 만난 장현석 대미레 회장은 한쪽에만 치중됐던 국내 미용의학의 실태를 꼬집었다. “정상인 얼굴을 배우 김태희처럼 만드는 것만이 미용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얼굴이 망가진 환자의 얼굴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도 미용이라는 것이다. 대미레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 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미레는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개최프레임을 ‘정상’으로 돌아가자

로 내걸었다. 국내 미용의료가 성형에만 집중 돼있는 것에 탈피, 화상 환자, 사고 환자 등 성형이 필요한 다양한 환자를 위해 정진과-이비인후과 등 산업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해당 분야 발전을 선도하자는 포부다.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성형외과에서 불가능한 수술은 다른 파트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협진을 통해 종합적인 케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지금까지는 각 분야가 알아서 진행했지만 지금부터는 모든 분야의 의료진이 협력할 수 있도록 대미레가



장현석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장이 14일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서울 그랜드인 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 회장은 따르면 국내의 미용의학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다. 환자들의 수준이

높아지다보니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그에 맞춰 의학 기술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장 회장은 “보톡스의 경우 의사들이 기술 습득을 위해 유럽·남미 지역 아카데미에 참석하지만, 아카데미의 내용들은 이미 한국에서 1-2년전 상용화된 기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회장은 “국내의 메디컬 시장은 내수가 3%, 97%가 해외에서 발생한다”며 “국내에서는 전체 미용 의료 산업이 서로 협력하고 기술을 공유하며 경쟁력을 쌓고 국제적인 시장에서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미레가 선도자 역할을 하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대미레는 미용외과 분야를 연구해 좀 더 나은 미용외과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고자 하는 학회다. 이번 행사는 800명 이상의 의사들과 90개 이상의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며 대미레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유현 기자 yhssoo@

팀 쿡 “비밀 제품 준비 중”

(애플 CEO)

美 TV쇼서 ‘애플TV’ 언급… 마니아들 기대감 상승

“아무도 모르게 작업하는 제품들이 있다. 아직 소문이 돈 적도 없는 제품들이다.” 최근 아이폰6와 애플워치를 선보였던 팀 쿡(사진)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12일(현지시간) 미국 PBS ‘찰리 로즈 쇼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쿡 CEO는 애플이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큰 관심이 있는 분야 중 하나는 TV라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TV는 1970년대에 간헐 있었으며 TV를 보려고 거실에 가는 것은 시계를 뒤집어 뒤로 가는 것과 거의 같은 일”이라면서 애플의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인 ‘애플TV’를 통해 TV에 혁신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스트리밍 셋톱박스인 애플TV는 현재 약 2000만명의 사용자를 갖고 있지만 최근 업데이트도 2년여 전에 이뤄져 루쿠와 구글 크롬캐스트 등 경쟁제품에 밀리고 있다.

쿡 CEO는 또 애플 창업주인 고(故)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잡스



는 애플의 디엔에이(DNA) 속에 깊이 남아있으며 그의 정신은 항상 회사의 기초가 될 것”이라면서 “나는 매일 그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잡스는 복잡한 것이 아닌 단순한 것, 혁신을 옹호했고 기본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만 애플이 진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애플에는 잡스의 사무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애플TV는 잡스가 생전 마지막까지 열정을 보인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애플TV가 잡스가 말한 그런 기기는 아니라는 평가다. 이에 쿡 CEO가 다시 TV를 언급하면서 애플 마니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김은혜 前 KT 전무

종편으로 방송 복귀

MBN 시사토크 진행

김은혜(사진) 전 KT 전무가 6년 만에 방송으로 복귀한다.



15일 MBN에 따르면 김씨는 9월 가을 개편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시사 토크 프로그램인 ‘뉴스&이슈’를 진행한다. 평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되는 뉴스&이슈는 국내외 이슈와 인물을 비롯해 사회 전반의 문제를 짚어보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한 코너를 요일별로 배치, 각종 사회 문제를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등 새로운 스타일의 시사토크를 선보인다.

김씨는 MBC 기자 출신으로 2008년 2월 대통령 제1부대변인(외신담당)으로 정치권에 첫 발을 디뎠다. 2010년 7월까지 대통령실 제2대변인을 지내다 그해 12월 KT로 자리를 옮겨 지난해까지 그룹콘텐츠전략담당, GMC전략실장, 커뮤니케이션실장 등을 지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평창 계방산서 ‘임직원 결의대회’

“창립 60주년, ‘백절불굴’ 정신으로 도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60주년을 맞이한 올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60년을 창조하자”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임직원과 함께 지난 13일 강원도 평창 계방산에서 임직원 결의대회를 갖고 불굴 타개를 위한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지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동국제강은 임직원들이 단합해 60년 장수기업의 지력으로 한 단계 도약하자는 취지로 ‘2014 동국제강 임직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장 회장은 “한 번 정한 목표는 포기하지 않고 기필코 성취하는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정신으로 도전해달라”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결의대회에서 장 회장과 남윤영 사장 등을 포함한 관리직 임직원 500여명은 13일 새벽 계방산 입구(계방산 탐방지원센터)에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13일 ‘2014년 임직원 결의대회’를 갖고, 선두에서 계방산(해발 1,577m)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 동국제강

서 시작해 정상을 거쳐 오토캠핑장으로 이르는 총 12km의 산행을 6시간여에 걸쳐 완주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계방산 입구까지 갔다가 폭우로 입산이 통제돼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고, 올해 다시 한 번 계방산에 도전해 완주했다.

장 회장과 임직원이 참여하는 산행은 지난 2008년 오대산을 시작으로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덕유산에 이어 올해 계방산까지 6년 동안 진행해오고 있다.

한편, 동국제강은 경기 침체에 대응해 고품질 차별화 전략으로 해양플랜트용 후판, 내진철근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브라질에서는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CSP제철소를 건설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한화그룹 ‘서울세계불꽃축제’

내달 4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개최

한화그룹은 오는 10월 4일 한화와 함께 하는 2014 서울세계불꽃축제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다음달 4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공원에서 개최된다. 영국·중국·이탈리아·한국 등 총 4개국 대표 연화팀이 참여해 총 11만여발의 불꽃을 하늘에 쏘아 올릴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한화그룹은 경품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30일까지 서울세계불꽃축제 공식사이트에서 ‘불꽃티켓’을 클릭한 후 응모하면 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벤트 당첨 1등은 여의도 63빌딩 59층 위킹온더클라우드에서 저녁식사와 불꽃축제를 감상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티켓’(5명, 10명)이 증정된다. 2등 40명(80명)에게는 행사 당일 63빌딩에서 싱어송라이터 가수 라디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 3등 100명(400명)에게는 한강 고수부지의 ‘불꽃좌석’ 관람권이 제공된다. 또 20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교환권도 증정한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100경기 출장·우승… CJ레이싱 김의수 ‘점점사’

국내 선수 중 세번째

김의수(CJ레이싱) 감독 겸 선수가 개인 통산 1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다. 그는 이 경기를 우승으로 자축했다.

김의수는 지난 13일 강원도 태백 레이싱파크에서 열린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제6전 슈퍼6000 클래스에 출전해 국내 모터스포츠 주관단체인 한국자동차경주협회 공인 대회에 100번째 참가했다. 이는 국내에서 2012년 이재우(세보레이싱), 지난해 조항우(아트라스BX)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기록이다.

김의수는 지난 1993년 데뷔해 100경기



지난 13일 강원도 태백에서 열린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서 통산 1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운 김의수(오른쪽)가 변동식 한국자동차경주협회장으로 부터 상패와 기념 선물을 전달받고 있다.

에 나서는 동안 통산 32승, 폴포지션(연선 1위) 28회 등의 성적을 거뒀다. 3경기 당 1

차례 폴 우승으로 31%에 달하는 승률이 다.

한국자동차경주협회에서는 김의수의 100경기 출전을 기념해 13일 경기 현장에서 상패와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 또 연말 모터스포츠인의 밤 행사에서는 기념 반지를 선물할 예정이다.

김의수는 “100경기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경기는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후배 선수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해의 진출 모색 등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수는 지난 5월 폴프스 선수 출신 최여진씨와 결혼한 ‘스포츠 커플’이기도 하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김자인, IFSC 세계선수권 리드 ‘정상’

‘스포츠클라이밍 여제’ 김자인(26·울렛스포츠·사진 가운데)이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에 올랐다.

김자인은 15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히혼 팔라시오 데 데포르테스 체육관에서 열린 IFSC(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스포츠클라이밍 사상 처음으로 리드(난이도)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IFSC 세계선수권대회는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최고의 권위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회다.

김자인은 2012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했지만, 2009-2011-2012년 세계선수권대회 리드 부문에서는 3회 연속 준우승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독보적인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그동안 세계선수권대회 리드부문 노골드 한을 풀었다.

결승전에서 마지막에 출전한 김자인은 편안하게 48번째 홀드를 움켜쥐며 무



사진제공 울렛스포츠

승을 확정지었다. 김자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등반을 이어가 완동 홀드를 잡아내 관중들의 기립박수를 받아냈다.

김자인은 우승 시상식 직후 “결승전에서 긴장이 되기보다는 마음이 편했다. 준우승을 3번이나 해서인지 이번에 우승 운이 따라 주지 않아도 경기를 즐긴 준비가 돼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서울메트로 송정훈씨, 철도차량 명장 1호

서울메트로는 서울메트로 기술연구원의 송정훈(48·사진)씨가 국내 최초로 철도차량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명장은 산업 현장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에게 수여되는 칭호로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휘장, 명패와 일시 장려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같은 직종에서 계속 종사하면 매년 장려



를 수행해왔다. 박태진 기자 tipjippo@

부음

▲허정훈(변호사·전 사법연수원장)씨 배우자상, 허은영·은진·민정·지연씨 모친상, 이상숙(삼성화학 전무)·이원신(군산시원 부장관사)·김민정(한성자동차 이사)씨 장모상 = 14일 오후 11시 15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 발인 17일 오전 6시, 02-3410-6920

▲김일태(전 영암군수)씨 별세 = 14일 오후 3시, 광주 전지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10시, 062-527-1000

▲이태희(전주산업 회장)씨 부친상 = 14일 오후 5시 10분,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43-269-7211

▲유명성(한국일보 대구본부장)·문상(구미 하이리텍 사원)씨 모친상, 이는 미(대구시 장애인복지과 사무관)씨 시모상 = 14일 오전 11시, 대구의료원 국화원 201호, 발인 16일 오전 8시, 053-560-9570

▲김광식(충청대학교 교수)·구원철(대교 재무팀장)씨 모친상, 정영무(사업)·김원홍(대전 동구청 근무)·손승균(동부증권 FAS 본부장)씨 장모상 = 14일 3시 30분, 천주병원 장례식장, 발인 16일 8시, 043-279-0144

▲강승연(한화투자증권 준법관리팀장)씨 배우자상, 강지현·지훈씨 모친상 = 14일

오전 6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58 국립경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010-9459-2318

▲권재홍(그랜드스 고문)·육성(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태선(허령턴포스트 코리아 대표·전 한겨레신문 편집인)·태운·후자(인전시의회 전문위원)씨 모친상, 백영서(연세대 사학과 교수)·김대원·강상석(인천시 건설교통국장)씨 장모상, 나영희(인천도서관장)·노지향(행복공작 상임이사)씨 시모상 = 13일 오후 5시 30분, 이대목동병원 3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02-2650-2743

▲김철우(부산일보 전 논설위원)씨 별세 = 13일 오후 3시 10분, 부산 수영구 광안동 서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30분, 010-9318-8382

▲이보미(여자프르포퍼)씨 부친상 = 14일 오전 0시 12분,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516-1 강원효창레크리온 특실 302호, 발인 16일 오전 10시, 031-261-4441

▲장준(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범(우신고 교사)씨 모친상, 이성권(미국 싸이프레스 연구원)씨 장모상, 박윤경(엘리트어학원 원장)씨 시모상, 박승연(세브란스병원 내과학교실 강사)씨 조모상 = 13일 오후 5시 18분,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02-2227-7550

피할 수 없는 글로벌 경제전쟁

우리는 '전쟁'이란 단어에서 무기를 먼저 떠올린다.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영토전쟁이 국가 간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뤄졌고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군사력을 앞세워 세계의 주도권을 싸움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사정은 달라졌다. 전쟁이라는 단어는 많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단순히 영토를 얻기 위한 무력도발을 넘어 문화와 이념, 환경전쟁도 포함한다.

무엇보다 가장 비중이 커진 것이 경제전쟁이다. 서로의 경제력을 앞세워 상대 국가의 경제력을 압박하거나 주도권을 빼앗는다. 이 같은 경제전쟁은 잔혹하면서 냉정하다. 또한 세련되고 치밀하다. 정보와 자본, 기업, 인재가 무기다. 기업 간의 치열한 싸움이 국가 간의 싸움으로 변해 가는 모양새다. 경제전쟁에는 다양한 형태의 무기가 동원된다. 특히 핵심적 경영자원이 주무기다. 핵심적 경영자원이 원활히 순환하면 경제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젊은 발언대



손민지

이화여대 교육학과 지업선진화이카데미 14기

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다. 반대로 이들 경영자원의 원활한 순환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고 만다. 경제전쟁의 패배를 의미하기도 한다.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 요소가 자유롭게 순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먼저다. 여기서, 핵심적 경영자원의 순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 곳곳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 파도 속 기업간 경쟁이 국가간 경쟁으로 양질의 노동력, 원활한 부품공급 등 FDI 유치 위해 공세적 전략 펼쳐야

에 투자를 단행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 경영자원이 FDI 유치국가에 녹아들기도 한다.

전 세계의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전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경제전쟁에서 이기려면 다국적 기업의 오히려 입장에서 어떤 나라에 투자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연히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이 존재하고 부품공급이 원활하며 현지 정부가 외국 기업에 우호적인 나라에 생산기반을 세우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외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에 보완적이면서도 유망한 경영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물망에 오른다.

기업에 보완적인 경영자원이 마치 개개의 포도알처럼 모여 포도송이를 이루듯 서로 한 지역에 밀집된 산업에 다국적 기업이 몰려들게 되는 양상이다. 때문에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 특유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21세기에 글로벌 경제전쟁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점진적으로 세계 시장이 단일 경제권에 접어들면서 정보와 자본, 기업, 인재는 한 국가의 소유물이 아닌 글로벌 시장의 소유가 됐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패하지 않으려면 경제적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파도가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파도가 물고 온 충성 없는 전쟁은 이미 오래전 시작됐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화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한국의 희망, 창조경제의 구현은 창조교육으로 뒷받침된다. 이제 모방에서 선도를 위한 창조교육의 대장정을 시작할 때가 다가온 것이다.

선진국을 추격하는 모방경제에서는 정답을 빨리 맞추는 교육이 필요했다. 현재 한국의 교육이 재미없는 주입식 강제 교육으로 최적화된 이유다. 그러나 머네인(Murnane) 보고서는 반복되는 업무는 급속히 사라지고 창조적 협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시대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더구나 구글 등 인터넷 검색의 발달은 단순 정보의 가치를 노레방의 노래 가사와 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 가고 있다. 과거 계산기에 단순 계산을 맡겼듯, 이제는 검색에 단순 정보를 맡기고 우리는 더 창조적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1분 내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과다한 학습 시간을 투자할 이유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렇다면 창조교육이 나아가 갈 방향은 명확해진다. 창조성과 협력성을 바탕으로 모방을 위한 정답보다는 선도를

창조경제와 창조교육

위한 문제의 발굴에 주력하는 교육이다. 혼자서 문제집을 외워 정답을 맞추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창조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 미래의 창조교육이다. 바로 정답(content)교육에서 맥락(context)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한국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조교육의 근간이다.

과연 이러한 교육이 한국에서 가능할까? 질문에 답하기 위해 카이스트에서는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2009년부터 5년 동안 연간 400시간이 투입되는 실험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대성공'이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매우 재미있어 하고, 학부모들도 동의한다. 발명능력(IP)과 기업가정신(CEO)의 결합어인 IP-CEO라는 이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한국의 미래를 이끌 창조인재는 미래 사회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이 사회에 가치를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과정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미래 기술과 인문역사를 통해 미래 사회의 문제를 도출한다. 융합 기술을 통해 푼 문제를 지식재산(IP)에 담는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CEO)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연습을 한다. 이러한 교육은 온라인 콘텐츠 교육과 오프라인 콘서트 교육으로 나눠 각각 연간 200시간을 투입한다. 콘텐츠 교육은 5개 과목의 공통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학습하고, 콘서트 교육은 실제 문제 발굴과

해결을 하는 오프라인 협업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프로젝트 교육은 문제를 푸는 맥락을 스스로 학습하는 교육이다. 스마트 혁명, 기후변화 등 미래 문제에 대해 감성들이 화두를 제시하면, 팀 프로젝트로 각기 다른 문제를 발굴하고 밤새워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지식재산(IP)과 사업계획(BM)으로 만들어 간다. 자신의 특허와 사업계획을 만들어 본 학생들은 세상을 보는 깊이와 넓이가 한 단계 순화하게 된다.

프로젝트의 결과는 집단평가 과정을 통해 압축 학습을 하고 자기 진화적 발전을 위한 피드백을 받게 된다. 선배들의 멘토링, 집단 지능의 발전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자기 진화를 위한 성장 노트가 IP-CEO 교육의 마무리다. 그리고 학생들은 힘들지만 행복해한다. 정답 교육의 목표가 남들이 만든 객관적 스펙을 쌓는 데 있다면 창조교육의 목표는 스스로 도전에 의한 가치 창출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실험의 결과를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초등학교의 도덕교육은 종교도 과정 윤리교육에 부분 융합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는 윤리와 기업가 정신이 융합하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중등학교의 자율 학기제와 고등학교의 선택교과제는 IP-CEO 확산의 최적의 대안으로 보여진다. 대학은 창업 부진공과 장애편제의 적극적 활용이 기대된다. 그리고 필요한 공통 플랫폼은 카이스트의 결과를 발전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 외글와글

담뱃값 올리면 청소년 흡연 준다? 뜻대로 될까..

○...흡연 청소년 4명 중 3명은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를 끊거나 흡연량을 줄일 의향이 있다는 소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금연을 위한 담배가격의 점수가 다른 금연 대책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마도 담배 때문에 학교폭력이 더 늘 어날 것이다", "난 2000원일 때 아무도 안 피울 줄 알았는데 피우더라", "요즘 애들은 담뱃값 오른다고 안 피운다니 말도 안 된다", "담배 피우기 위해 다른 아이들 갈취 더 늘겠다", "담배가 부의 상징이 되겠다", "원래 없어야 하는 흡연 청소년을 인정해 주는 조사"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소통 보장, GOP(일반전초) 면회 및 평일면회 허용, 장병 자율휴가 선택제, 생활관 개선 등의 정책이 효과 크다는 소식이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부대-부모-장병 간 24시간 소통의 경우 22사단 총기난사와 28사단 가혹행위 사망 사건으로 불안감이 가중되던 부모들이 안도하는 분위기가 늘었다. 네티즌들은 "면회나 휴가를 늘리는 게 역시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군인들 힘내길 바란다", "부모들이 안심한다니 다행이네", "좀 더 개선해야 한다", "이제 아이들 편히 보낼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군 기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군대가 아니라 보이스카우트", "특히라면 엄마한데 전화 하겠다", "풀어주면 더 안 좋아진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김우림 기자 hura@

오늘의 **배경** 배경

www.baekn.com

'삼총사' 정용화 "양동근 형 대단한 포스"



배극남달것은 최근 정용화를 인터뷰했다. 정용화는 tvN 일요드라마 '삼총사'의 공동 인터뷰 현장에 참석했다. 극중 정용화는 강원도 무인 출신의 열혈 초보 무관 박달항 역을 맡았다. 정용화는 작가 알레상드레 뒤마의 소설 '삼총사'를 모티브로 한 이번 드라마 캐릭터에 대해 "달타냥 역할을 원래 좋아하는데 세자빈 강빈 역할도 좋은 것 같다. 액션이 없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정용화는 "사극도, 현대극도 힘들지만 특히 처음엔 혼자 말 타는 것이 힘들었다"며 "(함께 연기하는 이진욱, 양동근 등을) 가까이서 못 보고 멀리서 왔다. 요새 점점 제 신분이 상승하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화는 "산배넛들과 연기 호흡을 맞춰 왔는데, 양동근 형은 평상시 뭐가 편안하게 계시다가 액션신 찍을 때는 눈빛부터 변했다. 실제로 촬영에 돌입할 때 대단한 포스가 느껴졌다"고 전했다. 정용화는 액션연기에 대해 "액션 같은 경우엔 재밌게 찍은 것 같다. 원래 맘도 많고 대나무 숲에서 용골대(김성민) 형이랑 10시간 찍는 신도 있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모기에 물리기도 했다. 현실로 돌아갔을 때 귀피로도 잘 못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은 재밌는 것 같다. 개운한 느낌이 있고, 오랫동안 투자해 액션을 찍고 싶은 마음이다"고 말했다. 정용화는 퓨전사극 '삼총사' 속 '빠빠빠' 등 최신 가요가 삽입되는 점에 대해 "본방송 때 처음 들었는데 낯익은 음악이 나오더라. 그런 소소한 코드들이 재밌었던 것 같다"며 "음악감독님이 씨엔블루 노래도 한 번 삽입해 주셨으면 좋았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꽃들 기자 flowerlee@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 1 김부선, 반상회에서 이웃주민 폭행 혐의 '경찰조사 받는다'
- 2 자동차의 웨어러블 실험... 차 열쇠도 손목시계로
- 3 도시보다 농촌 거주자 성인우울증 발생 빈도 높아
- 4 KT, 30년 넘게 묵힌 명으로 씨름전 '술술'
- 5 모두투어, 자유투어 인수한다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전문생산 전문업체

받는분께 강한 만족감을 드리는 꼭필요한 선물!!
G&SG에서 선물하세요~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당고에 기재된 로고나 상호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데스크 칼럼

스타트업을 춤추게 하는 5인의 레전드

9월 13일 토요일, 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북동쪽에 위치한 휴양도시 소살리토 언덕의 한 프랑스 레스토랑. 스타트업 전문투자사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와 마주한 국내 스타트업 CEO 및 관계자 11명은 점심 식사 후 소살리토 해변가를 산책하며 이런저런 사업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김 광 일 편집국 부국장 겸 뉴미디어실장

권 대표가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테크크런치', '비글로벌(Be Global)' 행사에 몇몇 한국 스타트업 CEO들이 참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페이스북 반개 중심을 제안해 이뤄진 자리였다.

취지 하나로 4년여간 많은 성공 포트폴리오를 구축, 스타트업 성공 보증수표로 불리고 있다.

금문교와 샌프란시스코만을 내려다보며 즐긴 오찬과 해변가 산책을 거닐며 나온 대화는 이들에게 있을 수 없는 감동과 사업적 영감을 던져준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

권 대표와 이택경 대표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 같이였을 만큼 15년여간 터득한 경영노하우 속살을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전수하고 있다.

스타트업 CEO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런 멋진 장면들이 요즘 스타트업계에 쏟아지고 있다. 벤처생태계 복원 조짐이 하나둘 영글고 있다.

소프트뱅크 미국법인에서부터 지금껏 투자업무만 20년 넘게 하고 있는 문규학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 투자의 원조격 인물이다. 문 대표가 항상 사업모델보다는 CEO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오랜 경험 때문이다.

멋진 풍광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과감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고 있는 5인의 벤처캐피탈(VC) 리스트들이다.

스타트업의 열정에 투자전문가의 진정성이 맞물리면서 지금 테헤란-판교 벨리는 가슴 뜨거운 청년 CEO들로 넘쳐난다. 경쟁력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멘토들이 넘쳐나고, 서로를 춤추게 하는 실리관벨리 스타일 풍광들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예전처럼 '답보 잡고 빗쟁이 채근하듯' 뒤달리는 악덕 VC란 악평은 온데간데없고, 그야말로 잔사 일색이다.

스타트업, 그들은 저들에게 길을 묻고, 멘토형 투자자들은 청년 CEO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는 오래도록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와 이택경 공동대표, 소프트뱅크 코리아 문규학 대표, 본엔젤스 장병규 대표, 캡스톤파트너스 송은강 대표 등 이른바 레전드급 투자자 5인방이다.

건강한 시장 논리와 생태계의 변화무쌍한 자연 복원력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다. 5인방의 '닥치고 스타트업'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창조경제란 단어를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장 큰 변화는 리스크 때문에 VC들이 그간 눈길조차 주지 않던 스타트업에 왔다투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병규 대표는 네오위즈 창업, 검색엔진 첫눈을 수백억 원에 네이버에 매각한 후 스타트업 투자에 전념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오늘도 그의 탁월한 경영노하우 전수에 탄복을 쏟아낸다.

5인방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미국식 투자기법과 함께 풍부한 경영노하우를 알려주는 이른바 특급 스타트업 생존도우미 역할 때문이다.

오랜 미국 VC 경험을 바탕으로 20년 가까이 벤처투자자

가장 큰 변화는 리스크 때문에 VC들이 그간 눈길조차 주지 않던 스타트업에 왔다투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라이머 권 대표는 월성부른 후배 CEO를 키워보자는

객석

액티비즘 대응방법 고민할 때



김 영 화 서울IR 선임팀장

은 회사에 대해 많이 알고 싶어하는 가운데 누군가 회사에 대한 정보, 분석자료를 공유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상장기업들은 이런 Activism이 우리 회사에도 있는지, Activism은 우리 회사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들에 대한 대응에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6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NIRI 컨퍼런스에 다녀왔다. 1년에 한번 열리는 행사로 약 1500여명의 참석자와 세계적 금융기관 사업부장들이 나와서 열띤 토론을 펼치며, IR 관련 해서는 아시아, 유럽, 미주를 뚫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된 내용은 Activism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대책 등으로 구성됐다. 유럽과 미주에서는 발생 빈도가 높아 IR담당자, 최고 경영자들도 Activism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유하고 있었다.

최악의 경우 Activism들 몇몇이 모여 가진 지분을 합쳐 최대주주와 비슷한 지분으로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 시간 토론을 통해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 의견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었다. 초기 대응을 잘 한 IR담당자는 Activism을 회사의 아군으로 잘 소통하며 지나지만 처음부터 엇나간 소통은 그 수습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Activism이란 회사에 대한 정보가 많고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적극적 투자자를 일컫는다. 물론 아직까지 한국시장은 이런 Activism이 많지 않다. 주주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Activism들의 활동이 두드러질 텐데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는 것은 이슈에 대한 사전대응이 아닌 다급한 수습인 것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까?

기자의 눈

제 살 깎는 베끼기 언제까지



이 다 램 산일부/zing@

이랜드그룹이 '국내 최초 펜스·리빙 SPA'를 표방하며 오는 10월 야심차게 론칭하는 브랜드 '버터'. 기자는 저렴한 가격에 트렌드한 인테리어 제품을 만날 수 있는 한국판 '플리잉타이거 코펜하겐', '투데이즈스페셜'을 기대했다.

그러나 공개된 일부 이미지를 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다른 의미의 한국판 플리잉타이거 코펜하겐, 한국판 투데이즈스페셜이었기 때문이다. 콧수염 모양은 플리잉코펜하겐을, 타이프 디자인은 투데이즈스페셜을 그대로 옮겨온 듯했다. 심지어 포장하는 끈까지도 투데이즈스페셜과 별 다른 차이점을 찾기 어려웠다. 물론 버터만의 예기는 아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선보인 홈퍼니싱 브랜드

'자주' 가로수길 매장은 일본 '무인양품' 매장과 헛갈릴 정도다. 심지어 원래 브랜드명 '자연주의'를 굳이 자주로 줄인 것조차 무인양품을 줄인 '무지'를 연상시킨다. 내로라하는 국내 의류 브랜드들이 명품 브랜드를 카피했거나,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너도나도 유행 아이템만을 좇는 분위기는 이미 새삼스럽지 않다.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똑같다. 디자인 아이디어가 곧 경쟁력인 리빙 시장에서도 이 같은 모습만을 보아야 하는 걸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업체 한 관계자는 "베끼기라는 표현보다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봐 달라"며 "뛰어난 디자인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가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 뒤로 독일 하멜른의 피리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피리 소리는 달콤하지만, 피리부는 사나이를 따라간 아이들은 모두 사라지고 만다. 똑같은 피리 소리를 따라가는 대신 새로운 노래를 불러 줄, 우리 디자이너들과 기업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차상업의 시선

한국축구와 슈틸리케의 '원인'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 있었던 5일 대한축구협회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의 사령탑으로 독일 출신의 울리 슈틸리케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이 용수 기술위원장이 슈틸리케 감독에 대한 선임 배경을 밝혔고 이후 3일 뒤인 8일 오후 그는 한국땅을 밟았다.

슈틸리케 감독은 도착 후 곧바로 한국과 우루과이 평가전을 관전했고 10일에는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 울산 현대의 K리그 클래식 경기 역시 현장에서 지켜봤다.

슈틸리케 감독은 독일 내에서도 그리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2014 브라질월드컵을 통해 세계적인 명장들의 경기를 접했고 흥명보 전 감독이 사퇴한 이후 베르트 판 마르바이크 감독과 접촉하는 등 차기 감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팬들에게 슈틸리케라는 인물이 주는 외형적인 만족감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월드컵 이후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명장들은 속속 차기 행선지를 결정했고 축구협회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좁아졌다. 이른바 감독을 영입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결국 지명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대표팀에 열정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것이 지상 과제였고 슈틸리케는 이렇게 선택한 인물이었다.

슈틸리케는 현역 시절 뮌헨글라드바흐와 레알 마드리드 등에서 활약했다. 지도자로서는 스위스와 코트디부아르 대표팀 감독과 독일 청소년 대표팀 레벨에서 감독을 맡은 바 있다. 몇몇 클럽팀에서도 감독직을 맡았다.

화려했던 현역 경력과 달리 지도자로서는 큰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하지만 독일 청소년 대표팀과 2006 독일월드컵을 대비한 '팀 2006'을 맡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유망주 발굴에 일가견이 있다는 점과 독일축구협회(DFB)와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 러시아월드컵을 준비하는 한

국 대표팀에게는 맞춤형 감독인 셈이다. 선수 발굴과 육성은 물론 브라질월드컵 우승팀 독일과 협력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가교를 얻은 셈이다.

정황상 슈틸리케는 축구협회가 처음부터 원했던 최상의 옵션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현재 대표팀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임은 분명하다. 지도자로서의 한 단계 도약을 꿈꾸는 슈틸리케에게도 마지막 기회다. 서로에게 원한다.

여기에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질적으로 뛰어난 유망주들이 대거 출현했다. 손흥민, 기성용 등 젊은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았고 현재 태극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 16세 이하 챔피언십에서는 이승우, 장결희 등 바르셀로나 유스팀 출신의 선수들이 맹위를 떨치며 4강까지 진출해 2015년 칠레에서 열리는 17세 이하 월드컵 출전권까지 확보했다. 쉼터 보배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즐비하다. 이들을 제대로 뛰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슈틸리케 감독이다.

이투데이

社 是 正 道 言 論 經 濟 報 國 未 來 指 向

www.etoday.co.kr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논설실장 김경철, 편집국장 강혁, 논설실, 정치경제부, 산업부, 문화부, 광고접수, 구독신청, 사정, 자문사정부, 미래산업부, 사회팀, 광고문의, 인력관리, 인사팀, 부동산사정부, 국제팀, 구독료, 2010.10.4 등 록 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the book '영영이별 영이별' by Kim Byul-ah. Features a portrait of the author and promotional text: "이 은밀하고 간절한 속삭임에 귀 기울여주실 건가요?",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로 쫓겨 간 단종과 비운의 왕비 정순왕후, 65년의 처절한 사랑이 김별아의 소설로 다시 태어나다!", "칼끝을 건듯 살아온 인생, 끝내 살아내리라!", "왕비에서 평민으로, 날품팔이꾼, 걸인, 비구나까지 피와 탐욕으로 점철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켜낸 은애(恩愛)의 기억 단종 비 정순왕후가 고백하는 두 해 남짓의 사랑, 예순다섯 해 그리움", "김별아가 썼다. 이제 내 차례다. 낭독콘서트 <영영이별 영이별>이라는 이름으로 활자와 배우가 만나는 시간. 이 떨림은 무엇일까?", "연극인 박정자", "그녀의 존재를 말하면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한다. 세상이 외면했던 65년의 고독을 말하면, 경악한다. 그녀가 옮겨담았던 운기, 이름 모를 여인들의 거친 손을 말하면 눈물짓는다. 삶은 수다한 이유와 목적을 떠나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유이자 목적임을, 나 또한 그녀를 쓰고 나서야 알았다. 알아가고 있다. -기자의 말, 중에서", 김별아 장편소설 영영이별 영이별, 사륙판 | 양장본 | 272쪽 | 13,800원



‘PO 2연승’ 빌리 호셀 1000만 달러의 사나이

BMW 이어 페덱스컵 우승까지... 맥길로이·퓨릭 공동 2위

빌리 호셀(28·미국)이 1000만 달러(103억원)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주 플레이오프 3차전 BMW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빌리 호셀은 15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 레이크 골프장(파70·7154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LPGA)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800만 달러·82억7000만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1개로 2언더파 68타를 쳐 최종합계 11언더파 269타를 기록하며 집 퓨릭(44·미국·8언더파 272타)을 3타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호셀은 플레이오프 2연승과 페덱스컵 트로피라는 두 토끼 사냥에 성공하며 우승 보너스 상금 1000만 달러를 손에 넣었다.

이번 대회 우승상금 144만 달러(14억8000만원)를 더하면 1144만 달러(118억3000만원)다.

3번홀(파4)까지 파로 막으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호셀은 4·5번홀(이상 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전반을 2언더파로 마친 호셀은 10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하며 추축했지만 다음 홀 플레이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 이어진 11번홀(파3)을 파로 막았고, 14번홀(파4)까지 팽팽한 긴장감을 이어갔다. 15번홀(파5)에서 전금 같은 버디를 잡아내며 우승을 예약했다.

반면 막판까지 호셀과 우승 경쟁을 펼친 집 퓨릭은 15번홀(파5) 버디로 호셀을 1타차까지 위협했지만 17번홀(파4)과 18번홀(파3)에서 연속 보기로 자멸했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를 달리며 생애 첫 페덱스컵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렸던 세계랭킹 1위 로리 맥길로이(25·북아일랜드)는 경기 중반 급격한 샷 난조로 무너졌다. 4번홀(파4) 버디로 기분 좋은 플레이를 이어갔지만 6번홀(파3) 더블보기에 이어 9번홀(파5)부터 3홀 연속 보기를 범하며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경기 막판 15번홀(파5)부터 3홀 연속 버디로 뒷심을 발휘했지만 호셀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종스코어 8언더파 272타로 집 퓨릭과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한국계 선수로 유일하게 출전한 재미동포 케빈 나(31·나상욱)는 3타를 잃어 함께 4오버파 284타로 공동 19위를 차지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빌리 호셀이 15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 레이크 골프장(파70·7154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LPGA)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 보기 1개로 2언더파 68타를 쳐 정상에 올랐다. AP뉴시스



김효주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 레뱅의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 18번홀에서 버디를 잡은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김효주는 이 버디로 캐디 벨(호주)에 극적인 재역전을 거두며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다. AP연합뉴스

마지막홀 버디 퍼팅 ‘대역전 드라마’ 김효주 첫 ‘메이저 퀸’

LPGA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노장’ 캐리 웹 한타차로 따돌려

허미정·장하나 공동 3위에

최나연까지 1-5위 중 4명

김효주(19·롯데)가 마지막 홀에서 대역전 드라마를 썼다. 김효주는 15일 새벽(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 레뱅의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장(파71·6476야드)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325만달러·약 33억원) 마지막 날 경기에서 버디 5개, 보기 2개로 3언더파 68타를 적어냈다.

이로써 김효주는 4라운드 합계 11언더파 273타로 캐리 웹(40·호주·10언더파 274타)을 한 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내년 시즌 LPGA투어 시드를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 초청선수 자격으로 출전한 김효주는 자신보다 19살이나 많은 캐리 웹과 한호에서 마지막 홀까지 우승 경쟁을 펼쳤다.

백전노장 캐리 웹의 저력은 무서웠다. 2번홀(파3)에서 더블보기를 범하며 무너지는 듯했지만 8번홀(파3)까지 파로 막은 뒤 9번홀(파5)부터 3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선두 김효주에 1타차 공동 2위로 뛰어올랐다. 15번홀(파5)에서는 티샷에 이어 두 번째 샷이 그린 사이드 벙커에 빠졌지만 벙커샷을 핀 옆 50cm 지점에 붙여 버디로 연결. 김효주와 공동 선두를 이뤘다.

승부는 후반 홀에서 갈렸다. 김효주의 16번홀(파3)

티샷이 핀 넘어 그린 에지 부분에 떨어졌고, 결국 보기로 이어지면서 이 홀에서 파로 막은 캐리 웹에 선두자리를 내줬다.

17번홀(파4)에서는 김효주에게 위기가 찾아왔지만 힘겹게 파로 막는 행운을 안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 18번홀(파4)에서는 세컨드샷을 핀 5m 거리의 오르막 라이에 떨어트렸다. 결코 쉽지 않은 퍼팅이었지만 과감하게 스트로크를 시도해 버디를 만들어냈다.

반면 한 타차 단독 선두를 달리던 캐리 웹은 보기를 범해 극적인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를 마친 김효주는 “마지막 홀에 온 힘을 다했다. 버디가 나와 정말 기분이 좋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17번홀(파4) 두 번째 샷(뒤땅)에 대해서는 “진짜 떨렸다. 실수를 만회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냥 지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경기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허미정(25)과 장하나(22·비씨카드)는 각각 3타와 5타를 줄여 최종 합계 9언더파 275타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장 하나는 17번홀(파4) 1m 거리의 짧은 버디 퍼팅을 놓치면서 선두 경쟁에서 밀려났다.

최나연(27·SK텔레콤)은 경기 중반까지 무섭게 몰아치며 4타를 줄였지만 8언더파 276타로 5위에 만족했다.

최연소 세계랭킹 1위와 최연소 메이저 챔피언을 노렸던 리디아 고(17·뉴질랜드)는 이번 기회를 쳐 최종 합계 4언더파 280타로 공동 8위를 차지했다.

그랜드슬램을 노렸던 박인비(26·KB금융그룹)와 박세리(37·KDB산업은행)는 내년 시즌을 기약하게 됐다. 박인비는 1타를 잃어 합계 2언더파 282타로 공동 10위, 박세리는 1오버파 72타를 적어내 합계 7오버파 291타로 공동 47위에 그쳤다. 오상민 기자 golf5@

TOTAL SPORTS CLUB
sanyaro

브레이크 등산화 출시!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는 아웃솔 전면부에 4개의 교체형 스파이크를 장착하여 스파이크의 기능에 따라 트레킹, 겨울산행 등 어떠한 조건에서도 미끄러움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ANYARO BRAKE SHOES

Multi Spike Outsole Technology
Trekking, Hiking, Camping

내리막 미끄러움에 강하다!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
●소재: 천연누벅가죽 ●인솔: 오소케어 천연가죽 인솔 ●100% 국내생산 ●가격: 168,000원

남성용 브레이크 등산화 SM2440 남성용 브레이크 등산화 SM2442 여성용 브레이크 등산화 SM2443

- ▶ 오소케어 인솔
- ▶ 뒤돌린 방지 중창
- ▶ 탁월한 쿠션 미드솔
- ▶ 정지력이 우수한 아웃솔
- ▶ 교체형 스파이크

45개국 국가가 바람에 나 부진다. 거대한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대화하며 분주하게 움직인다. 각각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자리한 2014 인천아시아게임 선수촌(아시아드선수촌) 풍경이다. 12일 개촌식을 마친 인천 아시아게임 선수촌이 손님 맞기로 분주해졌다. 이번 인천아시아게임 참가국 선수단이 속속 입국하면서 대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한국 대표팀 본진은 16일 입촌한다. 역대 아시아게임 최대 규모인 총 1068명으로 이뤄진 한국 선수단은 13일 남자 배구 대표팀을 시작으로 14일에는 여자 배구와 수영 경연 대표팀 등이 선수촌 입촌을 마쳤다. 대회 첫 금메달을 노리는 사격 대표팀은 15일부터 종목별로 선수촌에 들어오고, 야구 대표팀은 19일 입촌할 예정이다.

12일 개촌식 전부터 여장을 풀고 대회 준비에 돌입한 선수들도 많다. 14일부터 시작된 남녀 축구 조별예

“어서 오세요” 아시아드선수촌 문 활짝 최대 1만4500명 수용... 한국 대표팀 본진 내일 입촌



45개국 국가가 바람에 나 부진다. 거대한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대화하며 분주하게 움직인다. 각각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자리한 2014 인천아시아게임 선수촌(아시아드선수촌) 풍경이다. 12일 개촌식을 마친 인천 아시아게임 선수촌이 손님 맞기로 분주해졌다. 이번 인천아시아게임 참가국 선수단이 속속 입국하면서 대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한국 대표팀 본진은 16일 입촌한다. 역대 아시아게임 최대 규모인 총 1068명으로 이뤄진 한국 선수단은 13일 남자 배구 대표팀을 시작으로 14일에는 여자 배구와 수영 경연 대표팀 등이 선수촌 입촌을 마쳤다. 대회 첫 금메달을 노리는 사격 대표팀은 15일부터 종목별로 선수촌에 들어오고, 야구 대표팀은 19일 입촌할 예정이다.

12일 개촌식 전부터 여장을 풀고 대회 준비에 돌입한 선수들도 많다. 14일부터 시작된 남녀 축구 조별예

선 일정으로 다수의 국가들은 서둘러 인천을 찾았다.

아시아드선수촌에 가장 먼저 입촌한 국가는 파키스탄이다. 8일 태권도 선수들이 입촌하면서 본격적인 외국인 손님맞이에 들어간 선수촌은 싱가포르 요트 선수단과 방글라데시·쿠웨이트·태국·중국·이란·일본·우즈베키스탄·네팔·말레이시아 등의 축구 대표팀이 잇따라 입촌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11일 오후 고려항공 TU-504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북한 선수단 선발대(94명)는 이날 11번째로 입촌했다.

아시아드선수촌을 찾은 각종 선수들은 비교적 만족스러운 반응이다. 22개동 2200실 최대 1만4500명까지 수용, 이번 대회 참가 선수 전원을 수용하고도 남는다. 선수촌에는 식당을 비롯해 선수서비스센터·의료센터·피트니스센터·세탁소·경찰서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식당은 24시간 가동 체제로 24시간 무제한 자유급식이다. 주방에서는 요리사와 지원 인력 수백명이 각종 선수들의 식사를 책임지기 위해 분주하게 식재료를 다듬고 있다. 음식의 종류는 한식·동양식·서양식·할랄식(이슬람 율법이 허용하는 음식)을 포함해 총 548종에 이른다. 오상민 기자 golf5@



Cover Story

모바일 상품권 전성시대

간편하게 '선물하기' 터치 5년새 40배, 많이 컸다 너~

명절만 되면 백화점에서 어떤 선물을 사야 할지 고민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받는 이가 직접 선물을 고를 수 있는 상품권이라는 편한 거래수단이 등장하면서부터다. 하지만 명절 때마다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백화점 등지에서 줄을 길게 늘어셔야 하는 것도 몇 년 후면 옛 풍속으로 묻혀질지 모른다. 스마트폰으로 상품권을 주고 받는 시대가 열리면서 시간·장소에 관계 없이 편리하게 선물을 주고 받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휴대폰을 활용해 선물하는 것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휴대폰에 저장된 물건을 제시하면 곧바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게다가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바로 보낼 수 있어 시간 절약, 분실 가능성 감소 등의 장점도 갖추고 있다.

이에 바쁜 직장인 혹은 주부들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해 마음을 전하는

음식료·가구·세제 등 종류 다양
쇼핑 시간 절약... 분실 염려 없어
백화점 상품권 중 20~30% 차지
작년 국내시장 1400억규모 성장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신세계백화점은 이같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선보였다. 현재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은 전체 상품권의 20~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백화점 상품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되면서 선물 행태도 바뀌는 추세다.

대형마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얼마전 추석선물 세트를 할인해주는 모바일 상품권을 출시한 한 대형마트는 일주일 만에 억 단위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상품 종류와 수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아이스크림·빵·음료수와 같은 식품은 물론, 세제·주방용품 등 인테리어 가구와 주거 용품까지 모바일로 선물할 수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다.

휴대폰으로 간단히 다른 이에게 선물할 수 있게 되다 보니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2011년 7억 달러에서 2016년 9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강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30억원대에서 지난해 1400억원을 넘어섬에 5년 사이 40배 넘게 급성장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머지 않아 국내 대부분의 상품권이 모바일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상품 구매 행태와 목적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편리함까지 제공하는 모바일 상품권의 탄생과 그 배경, 장단점 등을 알아본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커버스토리 18·19면



백화점 상품권도 스마트폰 속으로 쏙쏙

‘신세계 기프트’ 스마트폰 직접 결제 선물할때 사진·메시지도 함께 보내 롯데·현대백화점도 발행 비중 늘어

최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과 전달이 편리하다는 점과 선물을 받는 사람의 기호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상대방과 나를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미래장조과학부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2008년 32억원에서 2012년 1063억원, 지난해 1413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매출로만 놓고 보면 5년 사이 40배가 넘게 성장한 셈이다. 눈여겨 볼 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주로 쓰이는 기프트콘에 국한되지 않고,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점들이 모바일 상품권을 출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백화점은 상품권 판매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늘었다. 특정 추석선물세트를 할인해주는 모바일 상품권을 출시한 대형마트는 일주일 만에 1억여어치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추석을 앞두고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했다.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신세계 기프트’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신세계 백화점이 출시한 모바일 상품권 ‘신세계 기프트’ 사진제공 신세계 백화점

있다. 신세계백화점뿐만 아니라 이마트 매장, 스타벅스, JW메리어트호텔과 이마트에브리데이, 위드미 등 신세계 관계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백화점 업계에서 활용하던 모바일 상품권은 문자 형태로 일정 금액을 수신하면 백화점에서 종이 상품권과 교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신세계 기프트는 직접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 스마트폰 내 코드를 스캔해 현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간단한 메시지나 사진을 함께 보내는 기능도 추가해 사용자들의 편의를 더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늘려 시장 확대에 나서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모바일 상품권 비중이 전체 상품권 발행액 중 2011년 14%에서 2012년 21%, 2013년 25%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모바일 상품권 비중이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백화점도 올 들어 모바일 상품권 발행액이 지난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했다.

대형마트에도 모바일 상품권 훈풍이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2일 유통업계에서는 최초로 특정 상품이나 카테고리에 할인을 적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홈플러스콘’을 출시했다. 상품권 바코드와 번호, 인증번호, 사용 방법 등이 담긴 메시지 서비스(MMS)로 발행돼 일반 모바일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다. 최근까지 추석 선물세트와 베이커리류, 문구용품만 구매가 가능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주도권 잡은 카카오톡

카톡이 점령한 시장 ‘원조’ 이통사 밀려나고 라인 ‘후발주자’로 고배



SKT·KT·LG U+ 10여년 전 편의점 커피 교환권으로 시작 카톡 ‘선물하기’ 등장 시장 재편 커피서 의류까지 종류 대폭 늘려 라인·티몬·옥션 등도 사업 가세 통신사→메신저·소셜로 ‘환갈이’

은 주춤하거나 심지어 카카오톡을 통한 유통 시스템에 편입되는 상황까지 됐다.

실제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기존 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확대해 최근에는 자전거, 의류, 식품 등 오픈마켓 규모로 상품 종류를 늘렸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성장 가능성은 모바일 방문자 수로도 예측할 수 있다. 지난 8월 카카오톡 선물하기 방문자는 쿠팡 방문자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업 랭키닷컴에 따르면 8월 2주 기준 카카오톡 전체 이용자 중 선물하기 메뉴에 접속한 비율은 36.8%까지 상승했다. 이를 이용자 수로 환산하면 920만명을 넘어선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만 해도 ‘휴대폰으로 선물한다’는 개념은 매우 생소했다. 그러다 보니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갖 생기기 시작할 당시에는 지인이 보낸 모바일 선물을 스텝으로 오해하고 삭제해버리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모바일 상품권의 ‘원류’는 편의점 커피라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이통통신사인 SK텔레콤(기프트콘)과 KT(기프트쇼), LG유플러스(기프트유)가 편의점 등에서 커피로 교환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선보였다.

이런 모바일 상품권이 시장에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다. 특히 2007년 전후로 국내 통신사들이 휴대폰에 선물할 수 있는 상품권을 잇따라 선보이며 모바일 상품권 개념을 대중화시키기 시작했다.

우선 SK텔레콤은 기프트콘을 국내에서 론칭해 200여개 브랜드, 4만5000여곳에 달하는 매장과의 제휴를 통해 성공을 거뒀다. 기프트콘은 모바일 상품권의 한 종류로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휴대폰에 저장된 기프트콘을 제시하면 결제가 가능하다. KT엠하우스, LG유플러스 역시 각각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인 ‘기프트쇼’, ‘기프트유’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초기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통신사들의 ‘선물하기’ 서비스의 하나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국내 모바일 시장이 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장 흐름 주도권이 초기 모바일 시장을 장악했던 통신사에서 메신저, 소셜커머스 등 또 다른 채널로 갈아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성장세는 무섭다. 90% 이상의 메신저 시장을 점유해버린 카카오톡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빠르게 재편됐고, 통신사들

이에 더해 카카오가 LG CNS의 공인인증서 대체 기술 ‘엠페이’를 도입하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더욱 큰 성장세를 예고했다.

결국 카카오톡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크호스로 떠오르자 경쟁사들이 견제에 나섰다. 실제 SK플래닛은 지난 7월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카카오가 지난 6월 카카오톡 내 ‘카카오 선물하기’ 코너에 모바일 상품권을 공급하던 SK플래닛(기프트콘), CJ E&M(쿠팡), KT엠하우스(기프트쇼), 원큐브(마켓팅(기프트)) 등 4곳과 계약을 종료하고 상품권 사업을 독자 운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이들 4개 업체가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빵집·편의점 등과 계약을 맺고 모바일 상품권을 카카오에 공급했지만, 이제는 카카오가 커피점 등과 직접 계약을 맺고 모바일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겠다는 의미로 성장에 좀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 최근에는 메신저 라인까지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메신저 업체에 비해 소비자 층에 소극적이었던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역시 올해 들어 모바일 상품권 사업에 속도를 내며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소셜커머스 티몬은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기프트숍’ 서비스를 론칭했다.

G마켓도 ‘e쿠폰관’을 오픈했다. e쿠폰관에서는 카페, 베이커리, 피자·치킨, 편의점, 마트 등 분야별로 총 70여개 브랜드의 e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옥션 역시 지난 1월 ‘e쿠폰’ 모바일 전용코너를 선보였다. 최대 20% 이상 할인 등 가격 혜택을 비롯해 기프트콘 형태로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www.dongsuh.co.kr

좋은 원두, 좋은 커피

세상에서 가장 욕심부리지 않는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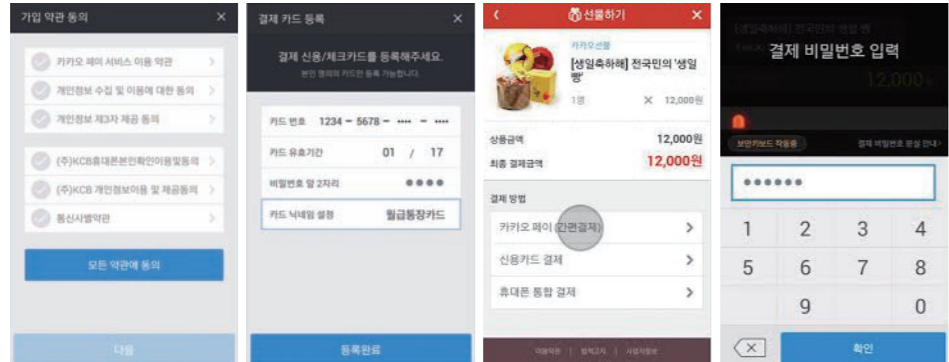
커피의 맛은 좋은 원두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원두도 추출에 욕심을 부리면 품질이 낮아지죠. 카누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엄선된 콜롬비아 원두를 카누만의 기술로 욕심부리지 않고 추출합니다. 여기에 미세원두의 풍미가 더해지면 신선한 아메리카노 카누가 탄생합니다

Maxim KANU



‘결제 플랫폼’ 전쟁 절차 간소화 ‘카카오페이’ 안전성 강화한 ‘애플페이’

카카오 페이 서비스 가입 및 모바일 결제 절차



1 서비스 가입 약관 동의 2 가입자 정보 입력/결제 카드 등록 3 결제 수단 카카오 페이 선택 4 결제 카드 비밀번호 입력

모바일 상품권 거래에 필수적인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선점하기 위한 각 기업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다. 글로벌 기업인 애플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결제 시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이 결제 서비스를 앞다퉈 도입한 이유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애플은 iOS를 통한 모바일 플랫폼을,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을 장악했지만 각사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결제는 모두 다른 기업들에 내줬다. 이들은 모바일에서 가졌던 결제에 대한 영향력을 유통으로까지 확대하려 한다.

◇카카오,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선점 나서 = 카카오는 지난 5일 LG CNS와 협력해 카카오톡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출시했다.

카카오페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모바일 결제의 복잡한 결제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여 사용자 편의성은 높이고 결제 포기율은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 가입 시 미리 등록된 결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모바일 결제를 마칠 수 있다.

가입절차 또한 간단하다. 카카오톡 사용자는 모바일 쇼핑물에서 결제수단으로 카카오페이 선택 시 스마트폰에 뜨는 가입창 또는, 카카오톡 실행 후 ‘더보기, 설정, 카카오페이’ 메뉴를 선택해 약관동의와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최소 6자리에서 최대 12자리의 숫자로 된 결제 비밀번호만 등록하면 된다.

현재 참여를 확장한 카드사는 BC카드(우리, IBK기업, 스탠다드차타드, 대구, 부산, 경남은행, 단 NH농협, 신한, 씨티, 하나SK, KB국민 제외), BC제휴카드(수협, 광주, 전북, 제주,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한, 현대증권, KDB산업은행, 저축은행, 중국은행), 현대카드, 롯데카드다.

카카오는 사용자 확대를 위해 참여 카드사와 공동으로 다양한 프로모션과 제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른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앱에 솔루션을 통해 결제 시 필요한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암호화해 사용자 스마트폰과 LG CNS 데이터센터에 분리 저장함으로써 정보유출을 차단한다. 또한 본인 명의로 개통된 1대의 단말기에 동일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만 등록할 수 있어 다른 스마트폰을 통한 제3자의 결제도움이 불가능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결제단계가 대폭 간소화된 카카오페이가 국내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119@

카카오페이

등록 비밀번호로 간편 결제
제휴 프로모션 사용자 확대

애플페이

지문 기술로 결제도용 차단
아이폰 사용자에게 제한 한계

◇모바일 결제, 애플도 움직였다 = 애플도 모바일 결제 시스템 ‘애플페이’를 지난 9일 내놨다. 애플은 카카오톡보다 좀 더 진일보한 기술을 적용했다. 다만, 아이폰으로 사용자가 제한되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애플은 근거리 무선통신(NFC)칩과 지문인식 기술을 활용했고, 보안을 위해 아이폰의 지문인식 기능을 이용해 본인인 아닌 경우 결제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했다.

애플페이는 애플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은행이 발행하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비자 등 3대 주요 결제 네트워크의 신용카드 등을 지원한다. 또 비접촉식 결제가 가능한 미국 전역의 22만 개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앱을 통한 구매대금 결제도 가능하다.

시장조사업체 포레스터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은 2012년 128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9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과 카카오톡이 같은 성장세에 있는 모바일 결제 시장을 노렸다. 정확한 수치로 계산되지는 않지만 수천억 달러의 이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카오와 애플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기존 출시된 앱카드 등보다 보안성과 편리성에서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신용과 체크카드 최대 20개를 입력해 번갈아 사용할 수 있고,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자랑한다. 카카오페이에 적용된 LG CNS의 엠페이(MPay)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 보안 ‘가군’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결제솔루션으로 공인인증서와 동급의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애플페이는 자신의 지문을 이용해 인증하기 때문에 보안성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어느 서비스보다 뛰어나다.

“환불 절차 너무 복잡해” 소비자 불만 팽팽

업체별 사용·보상 규정 제각각 상품권 사용기간 60일 너무 짧아 고객 중심 서비스 개편 선결과제

별다른 발품 팔 필요 없이 지인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만족감이 높은 모바일 상품권. 메신저와 연계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편의성은 더 높아져 모바일 상품권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하지만 선불하기는 간단하나 환불 절차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서비스 초기에는 환불받을 수 있는 길조차 막혀 있었다. 시장이 커지며 업체들도 이용자들의 불편함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강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이 성숙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연 5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상품권마다 사용과 보상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발행 규제 강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기간도 60일로 짧은 편이다. 종이 형태의 일반 상품권 유효기간이 일반적으로 5년이고, 주요 백화점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없는 데 비해 모바일 상품권은 2-3개월에 불과하다. 재값을 지불하고 구입했음에도 △사채 할인 행사 적용 제외 △포인트 적립 불가 △현금영



수증 발급 거부 등의 제약을 두는 경우도 있다. 특히 백화점은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할 수 없어 최초 구매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 국내 모바일 상품권 1인자로 자리 잡은 카카오가 직접 서비스를 시작, 유효기간이 지나도 환불이 가능토록 정책을 바꾸며 소비자 편의 증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모바일에서 직접 쿠폰 유효기간 연장과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고객이 환불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환불해 주는 정책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서비스 전반의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UI와 디자인을 개선하고, 테마별 선물 상품 추천 기능도 새롭게 도입했다.

업계 최초로 도입한 자동환불제도 본격화된다. 자동환불제는 고객이 사용기간 만료 이후 쿠폰과 관련해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금 환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돌려 받아야 할 금액만큼 카카오포인트로 자동 환불해 주는 정책이다.

카카오는 “획기적으로 개선된 쿠폰 유효기간 연장과 환불 정책, 이용자 중심의 자동환불제 적용 등 소비자 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서비스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카오톡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나 환불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소극적이어서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유현 기자 yhssoo@

‘금융주치의’는 엄격하게 선발된 자산관리 전문가 입니다.

전문금융지식과 투자컨설팅경험을 갖춘 165명 금융주치들이 시장의 기회와 리스크를 분석하여 최적의 자산 리밸런싱을 제안합니다.

대신증권 [금융주치의]

※ 금융주치의는 특허청에 등록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서비스표 등록 제 41-0271044호)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이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2245호(2014.04.07 ~ 2015. 04.06)





DoM

비타민하우스

눈건강 슈퍼루테인 Eye Care Super Lutein

침침하고 흐릿한 눈을 시~원하게!
맑고 선명한 눈을 위한 현대인의 선택!

1일 1캡슐로 루테인 12mg, 비타민A 700ugRE 섭취



루테인은 눈속의 망막과 황반의 구성성분으로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가까운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코너** 에서 구입하세요!

한우물만 파다간 추락... '수익루트' 찾아 날갯짓

항공업계 사업다각화 바람

국내 항공업계가 외국계 항공사와의 무한경쟁과 경기불황에 따른 실적 악화를 이겨내기 위해 이윤 다각화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항공우주사업으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가 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추가 저비용항공사(LCC) 설립을 통해 수익구조 개선 전략을 착실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 더불어 국내 LCC도 화물과 에어카페 등 부대사업은 물론 본래의 중·장거리 외에 장거리 노선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일 대한항공이 북미를 제외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하얏트 호텔 '그랜드하얏트인천' 문을 열었다.



대한항공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틸트로터 무인기를 개발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5월부터 대형항공기 A380 1,2호기를 도입하고 8월 말부터 LA노선을 하루 2회 운항하고 있다.

주요 항공사 수익다각화 모델

- 대한항공**
 - 항공우주사업: 항공기 구조물 개발·제작 및 군 항공기 창고, 무인기 라인업 구축과 위성 등 우주개발사업 적극 참여
 - 호텔사업: 그랜드 하얏트 인천 증축 개관, LA 힐튼 그랜드 호텔 건설, 경복궁 인근 특급 호텔 건립 추진
- 아시아나**
 - 장거리 노선 확대: A380 등 대형항공기 도입해 LA노선 투입
 - 제2 LCC 설립: 에어부산 외 서울 거점의 LCC 연내 설립 추진
- 제주항공**
 - 부대사업: 여객수송 외 화물수송 및 에어카페 등 수익 모델 확대
- 진에어**
 - 장거리 노선 개척: B777-200ER 등 장거리 항공기 도입 및 하와이 호놀룰루 노선 취항 예정

저가항공사는 지금...

하와이·싱가포르... 장거리 운항 에어카페·호텔·렌터카·보험 연계

최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수익구조 다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LCC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우월한 지위 확보 방안을 찾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LCC들이 추진 중인 수익성 향상 전략은 장거리 노선 진출, 부가서비스 확장 등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진에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 국내 LCC 3사는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항공기를 도입해 대형 항공사의 특징을 결합한 메가 LCC 형태로 성장하는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

진에어는 오는 12월 LCC 업계 최초로 중대형 항공기인 B777-200ER(좌석수 383석) 1대를 우선 도입하고, 내년에 추가로 2대를 들여와 하와이 호놀룰루 등 장거리 해외 노선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진에어가 현재 보유한 B737-800 기종은 단거리 기종에 적합하며, 189석을 갖추고 있다.

에어부산의 경우 2018년까지 싱가포르 등 장거리 노선을 도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부산에서 미국 서부까지 12시간 이상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에어버스의 중대형 항공기 'A330'을 도입할 계획이다.

제주항공도 장거리 노선 진출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은 아직 장거리 노선 진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항공사는 중대형 항공기 도입에 따른 수익 창출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일례로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더 넓은 좌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옵션 판매나 이코노미석보다 간격을 늘린 좌석을 마련하는 방법 등이 있다.

국내 LCC들은 또 부가 서비스를 확대해 수입 증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5월부터 외주 업체에 위탁 운영해온 국제선 기내의 '에어카페'를 자체 케이터링(출장급식)으로 전환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연간 9억~1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가내 사업을 통한 현금 창출 효과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텔, 렌터카, 여행자 보험 등과 연계한 사업을 펼치는 항공사도 눈에 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6월부터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인 익스피디아의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과 운항 도시에 위치한 호텔 예약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김해진 기자 sinembargo@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은 차세대 먹거리 = 대한항공의 항공우주사업은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중요한 부문이다. 대한항공은 보잉과 에어버스 등 해외 유수업체에 각종 항공기 구조물을 개발·제작해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국군을 비롯해 아태지역 주둔 미군의 전투기, 수송기와 헬리콥터 정비 작업을 수행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민항기 중정비 분야에서는 40여년간 축적된 정비 능력과 함께 대형 항공기인 '보잉747' 4대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 무인기 라인업을 구축해 작년에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틸트로터 무인기의 회전·고정의 전이비행에 성공했고, 다목적 실용위성 구조체 개발 등 우주개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항공우주사업 부문은 작년 638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5%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12%에 달할 정도로 마진 개선에 일조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항공우주사업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35% 늘어난 867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인기와 군용기 부문의 성장을 바탕으로 2015년 1조1000억원, 2020년 3조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항공과의 시너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호텔사업은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 대한항공 부

대한항공, 항공우주·호텔사업 겸업 전투·수송·무인기 제작까지 그랜드 하얏트 인천 문 열어

아시아나항공, 노선 경쟁력 강화 A380 도입... 장거리 진출 제2 LCC 설립 근거리 확보

사장이 직접 나서서 행길 정도로 한진그룹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다. 조 부사장은 최근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 타워' 개관 기념 간담회에서 "호텔과 항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며 항공과 연계된 호텔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을 앞두고 증축을 거쳐 지난 1일 개장한 그랜드 하얏트 인천은 기존 객실 522개를 포함, 총 1022개의 객실을 갖춰 북미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세계 하얏트 호텔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인천

공항에서 차로 3분 거리에 있어 공항 내 호텔을 제외하고 가장 가깝다.

더불어 한진그룹은 12억 달러를 투입해 73층 규모의 로스앤젤레스 힐튼 그랜드호텔을 건설하고 있으며, 서울 경복궁 근처의 특급호텔 건립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제2 LCC 설립 = 아시아나항공이 추진 중인 전략은 장거리 노선 공략과 제2 LCC 설립으로 대변되는 비즈니스 모델 다변화다. 아시아나항공은 'A380' 등 대형항공기 도입을 통해 상대적으로 진출이 더딘 장거리 노선 확대를 꾀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통해 최근 경쟁이 치열해진 LCC의 장거리 노선 진출 등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전략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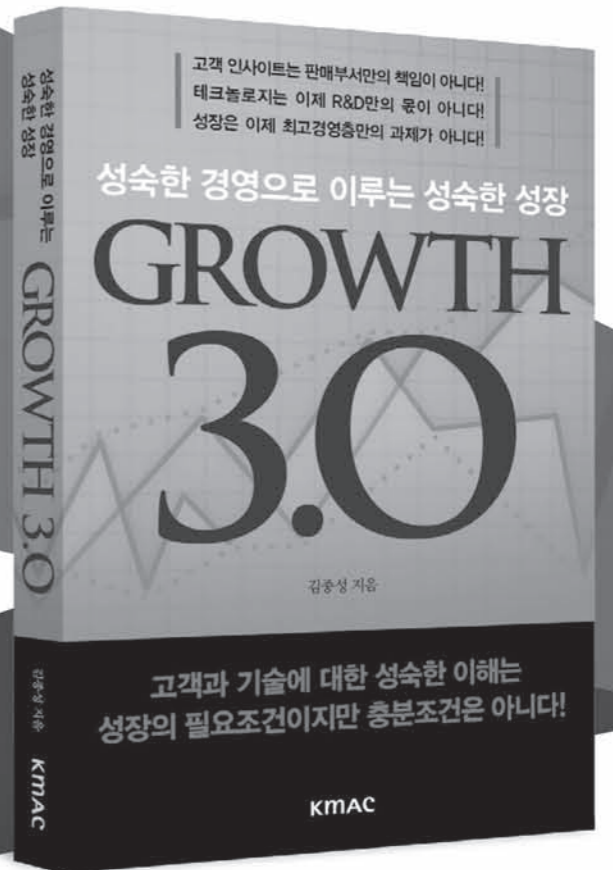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 A380 1호기 도입에 이어 7월 2호기를 도입했고 8월 말부터 LA노선에 하루 2회 운항하고 있다. A380은 비용 대비 효율성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비용 절감의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LCC 자회사인 에어부산 주주와 협의를 거쳐 연내 인천 거점의 제2 LCC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노선 위주의 프리미엄 항공사로 운영하고, 제2 LCC는 국내와 근거리 노선에서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더불어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수익성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만호 기자 sprdan@

고객과 기술에 대한 성숙한 이해는 성장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성숙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4대 역량!

- 혁신력** :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 성장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각 기업의 전통과 사업 무대, 전략 등과 연계되어 갖추어져 있다.
- 예측력** : 시장에 대한 예측력은 성장 기업이 가지는 공통적인 역량이다. 마켓 인사이트에 기반한 예측력과 추진력은 핵심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미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 활용력** : 성장에 능한 기업들은 성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할 때 자신들이 가진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한다. 브랜드, 유통망, 고객 관계, 기술, 네트워크 조절점 등 모든 자산을 성장에 활용한다.
- 적응력** : 성장에 능통한 기업들은 서로 다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결합, 연결, 혹은 분리시킴으로써 성장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동원시스템즈' 사고 ... 기관·외국인 쌍끌이에 '엇갈린 운명'

베스트&워스트
9월 11~12일

유가증권시장은 지난주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9월 둘째주(11~12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7.55 포인트 하락한 2041.86으로 마감했다. 투신과 기관은 지난 12일 하루 동안 각각 960억원, 565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19억원, 585억원의 순매도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지난주 소폭 하락 마감했다. 외국인 매도세를 견디지 못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주 대비 1.72포인트 내린 570.65로 마감했다. 직전 주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지난주 외국인은 536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411억원, 기관은 137억원을 순매수했다.

◇모나리자 18.46% 상승... 요우커 수혜 기대감 작용 = 1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종목 중 가장 크게 상승한 곳은 모나리자다. 지난 11일 코스피 지수가 약세인 상황에서도 3.11% 상승했다. 모나리자는 12일 상한가로 마감했다. 주가도 직전주 2735원에서 3240원으로 올랐다. 주가를 견인한 것은 개인이었다. 지난주 외국인 4억6700만원어치를 순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매수세(4억8600만원)가 주가를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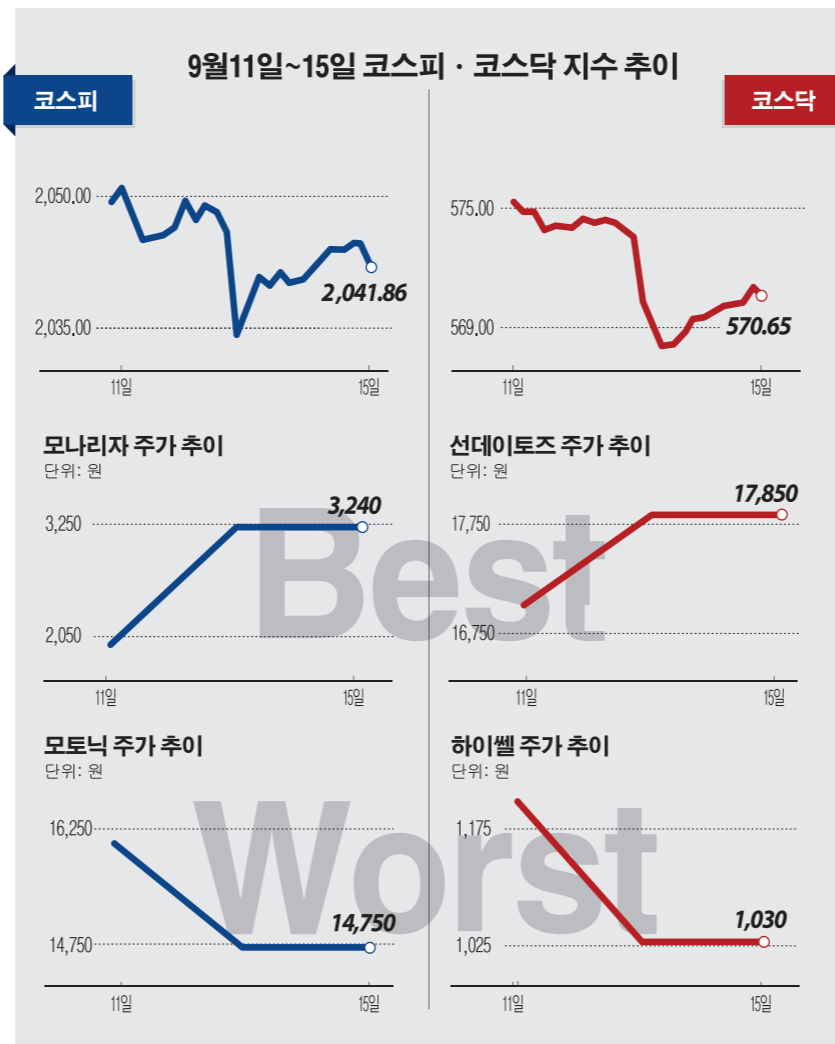
◇모토닉 13.74% 하락... 외인 순매도에 코스피 주르륵 =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종목은 모토닉이었다. 모토닉은 2주 전 1만7100원이었으나 지난주 1만4720원으로 13.74%나 떨어졌다. 주가 하락을 이끈 것은 외국인과 금융투자였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억4800만원, 1300만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억900만원, 금융투자가 2억6600만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중추절·야게임 눈앞 요우커 수혜株 '모나리자' 방긋
'모토닉' 외국인·금융사 팔자에 13% 뚝... 하락 1위
'동부제철' 자본잠식에 계열사 매각불발까지...11%↓

상승률 2위에 올랐다. 동원시스템즈는 지난주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에 주가가 올랐다. 잠치관용 포장, 식품 포장재 등이 주력 상품인 동원시스템즈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일, 3일 연속 순매수했다. 그 결과 8월 1만5000원을 넘지 못했던 주가는 2주 전 1만5000원을 찍고 지난주 1만7300원으로 마감했다.

대를 돌파하며 계속 오르다 추석 연휴 전부터 주가가 빠졌다. 동부제철은 재무구조와 M&A 약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지난주에만 11.56% 떨어졌다. 지난 11일 채권단의 실사 결과 자본잠식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주가는 이날 하루 9% 넘게 빠졌다. 다만 존속가치가 2조4000억원으로 청산가치 1조8000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돼 채권단의 자율합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를 낱에는 동부발전당진 매각이 엮어졌다는 소식이 주가가 빠졌다. 동부발전당진은 동부그룹 구조조정을 위한 핵심 매물 중 하나로, 우선협상대상자인 삼탄과 딜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나 예비 송전선로 건설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삼탄이 계약금까지 포기하고 인수 계약을 해지했다. 이 영향으로 12일 2.74% 떨어지며 1950원으로 마감했다. 8월 중순 이후 주가가 2000원대를 돌파했으나 지난주에 결국 1000원대로 주저앉았다.

황윤주 기자 hyj@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12일 시가총액	증가(원)	증가(%)
모나리자	118	2,735	18.46
동원시스템즈	417	15,000	15.33
SH에너지화학	134	1,050	15.24
부산주공	27	1,800	15.00
화성산업	174	12,300	13.41
보루네오	36	1,450	11.03
씨엔전자	60	2,030	10.84
삼성제약	93	3,855	9.73
신영외교루	118	119,500	9.62
국동	45	8,800	9.500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12일 시가총액	감소(원)	감소(%)
동아타이어	441	20,450	-9.05
F&F	162	11,600	-9.05
제일약품	256	19,100	-9.69
코리올당스	775	18,000	-10.00
이모데G	8,019	1,200,000	-10.27
한국화장품	93	6,510	-10.75
CJ대한통문	3,445	170,000	-11.18
동부제철	118	2,205	-11.56
한국화장품제조	45	11,400	-12.72
모토닉	487	17,100	-13.74

※자료: 에프앤가이드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12일 시가총액	증가(원)	증가(%)
선데이토즈	576	14,800	20.61
셀루메드	101	3,050	20.49
미래컴퍼니	51	5,650	18.05
아모텍	106	9,280	17.46
신화인터텍	79	2,820	15.96
에이저셀비	127	4,205	15.81
유비플렉스	64	9,100	15.38
에머슨퍼시픽	126	10,000	14.50
우성&C	54	1,450	14.14
이투온	37	3,415	13.47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12일 시가총액	감소(원)	감소(%)
개원빌	742	127,000	-10.39
넥슨지티	504	15,950	-10.66
경원산업	26	2,515	-10.74
나이백	21	7,000	-11.43
코리아나	126	3,575	-11.61
동화기업	389	28,900	-12.46
엠에스오토텍	57	8,330	-12.05
폴리비전	53	3,710	-12.14
사파이어테크	205	31,350	-19.94
하이셀	45	1,420	-27.46

※자료: 에프앤가이드

◇선데이토즈 20.61% ↑... 해외진출 성공 기대감 작용 = 15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선데이토즈다. 선데이토즈는 지난 11일 상한가로 마감한 뒤 이날 5% 추가 상승하며 주가가 1만4800원에 1만7850원으로 뛰었다.

기부터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분기 실적이 턱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적 개선 분석에 지난주 주가는 5650원에서 6670원으로 올랐다.

◇하이셀 대규모 유증에 주가하락률 1위 =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주 주가 낙폭이 가장 큰 종목은 27.46% 하락한 하이셀이었다. 지난 11일 하이셀은 인쇄전자 특화 신기술을 이용한 ITO센터 등 전자부품 원천소재 양산라인의 신설을 위해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인쇄전자 신제품 양산설비 신설과 부채상환 등 운영자금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총 245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발행신주 규모는 3000만주, 주당 예정 발행가격은 817원이다. 현재 유증주식이 4384만2000주로 신주 규모는 60%가 넘는다. 주가 회복 우려에 하이셀

'선데이토즈' 애니팡, 라인타고 해외진출에 상승 1위
'미래컴퍼니' 3분기 실적 턱어라운드 전망 18% 급등
'하이셀' 245억 규모 유증...이틀 연속 하한가 마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LINE는 글로벌 가입자 5억명, 아시아에서만 2억명의 유저를 확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도 '애니팡' 시리즈가 성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기관과 외국인은 지난주에만 각각 78억1500만원, 22억8600만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뒤를 이은 것은 20.49% 상승한 셀루메드다. 셀루메드는 의료기기(동종이식재, 수술용고정제, 인공관절, BIOLOGICS, SPINE 등)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중사하고 있다. 동종조직을 가공, 처리하는 인체조직은행으로 biologics 및 인체조직이식재 분야에서 국내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셀루메드 주가를 견인한 것은 외국인이었다. 지난주에만 외국인이 2억4600만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은 5억4100만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미래컴퍼니는 18.05% 상승하며 주가상승률 3위에 이름을 올렸다. 3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주가를 견인했다. 지난 12일 추연환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2014년 3분

은 이를 연속 하한가로 장을 마쳤다. 사파이어테크놀로지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매도세에 주가하락률 2위에 올랐다. 외국인은 6억5800만원어치, 기관은 49억5000만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금융투자도 투신도 각각 5000만원, 21억5400만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이 56억6700만원어치를 순매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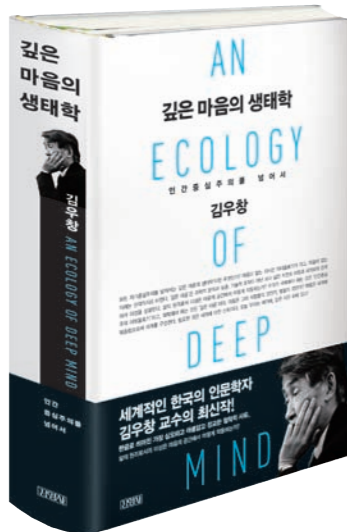
폴리비전은 여행사업에 진출한다는 호재에도 19.14% 하락했다. 지난 11일 701% 하락한 뒤 이튿날 13.04% 추가로 미끄러지며 주가는 3710원에서 3000원으로 떨어졌다.

엠에스오토텍은 유상증자로 주가가 17.05% 빠지며 뒤를 이었다. 추석 연휴 전장 마감 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22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 438만주를 발행하는 주주배정주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추석 연휴가 끝난 뒤 하한가로 마감했고, 이튿날에도 하락세로 마감해 주가는 8330원에서 단숨에 6910원으로 떨어졌다.

황윤주 기자 hyj@

"마음은 그대 사람들의 것인가, 별들의 것인가?"

이성은 마음의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 인문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한국의 석학 김우창의 강철 같은 사유가 펼쳐내는 깊은 마음의 구조에 대한 놀라운 탐구! 문학, 철학, 경제학, 사회학, 수학, 생물학 등을 총망라한 압도적 지식, 눈부신 통찰을 통해 동서양 최초로 '이성과 마음'의 문제를 생생하게 파헤치다. 한글로 써서 가장 심오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철학적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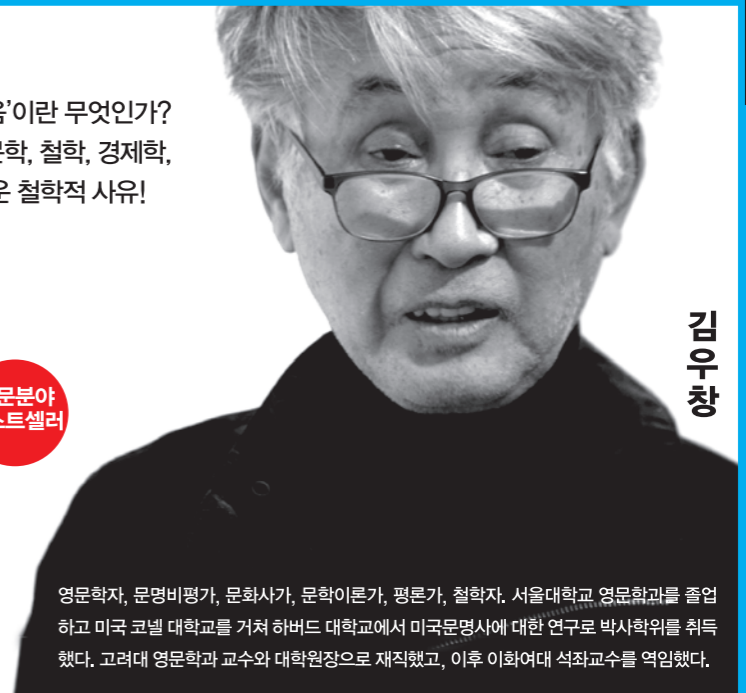


김우창
양장 | 516쪽 | 27,000원

깊은 마음의 생태학

|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 AN ECOLOGY OF DEEP MIND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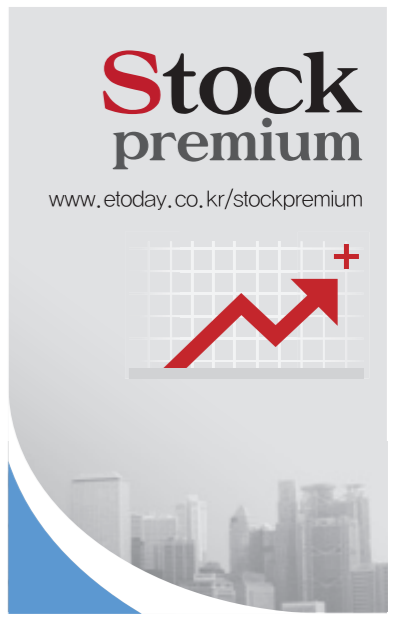


영문학자, 문명비평가, 문화사학자, 문헌학자, 평론가, 철학자.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 대학교를 거쳐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국문학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영문학과 교수와 대학원장으로 재직했고, 이후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세계적인 한국의 인문학자 김우창 교수의 최신작!

인간의 이성과 마음, 자연과 세계의 운명을 완벽하게 통찰한 역작! 김우창 교수의 사유 세계는 고대와 근대와 현대가 서로 비추고 질문하고 응답하는 대화의 장이며, 우리의 궁색한 생각들이 길을 잃고 헤매 때 길잡이가 되어준 통찰의 등대이다. **도정일**(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 선생의 주옥같은 글들은 한글로 쓰여지는 글로서 이를 넘을 수 있는 수준의 글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글에 담긴 지식과 지혜의 깊이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조차 최고의 수준이다. **최창집**(고려대 명예교수) | 이 땅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청년들과 독자들이라면, 김우창이라는 신을 결코 놓아갈 수 없을 것이다. **문광호**(충북대 독문과 교수)

김우창
TEL. 031-955-3200 www.gimyoung.com
책이 세상을 움직인다



'발등에 佛' 넥상스, 대한전선 인수 '수건' 던지나

프랑스 전선업체 실적악화·회장 교체설 등 악재로 예비입찰 포기할 듯

프랑스 전선업체 넥상스가 대한전선에 예비입찰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대한전선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예비입찰 참여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M&A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전선업체 넥상스가 대한전선 예비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CA를 맺고 검토 중이었으나 실적 악화와 회장 교체설로 인해 LOI 제출이 불투명해졌다.

복수의 M&A 관계자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예비입찰을 검토했으나 현재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넥상스는 실적 악화로 월드와이드 회장 교체설도 나오고 있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넥상스는 1998년 Kabelmetal Canada Wire, AEG Kabel을 인수한 뒤 2000년에는 알카텔그룹에서 분리된 세계적인 전선기업이다. 크게 기간산업(인프라 네트워크) 전선, 일반산업 전선, 빌딩산업 전선 등 크게 3대 사업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간산업 전선 부문에서는 항공용 전선, 지중선, 해저케이블 등을 만들고 일반산업 전선 부문으로는 조선소, 비행기 제조사, 철도회사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 전선업체 2위의 대한전선이 매물로 나오자 국내 사모펀드를 비롯해 프랑

스 전선업체인 넥상스, 중국계 전선업체가 일찌감치 CA를 맺고 IM을 받아갔다.

넥상스가 대한전선에 관심을 보인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2000년대부터 한국 시장에 적극 진출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한국의 대성전선(현 넥상스 코리아)을 인수하고 2003년에는 한국의 극동전선도 인수했다. 프레데릭 방상 회장은 2010년 "넥상스는 지금까지 M&A에 10억 유로 이상 투입해 왔다"라며 "지속적인 M&A에 나설 것"이라고 직접 말한 바 있다. 유력한 인수 후보였던 LS전선 등 국내 전선업체가 빠지면서 넥상스 참여가 기정사실화됐으나 올해 실적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 7월 넥상스는 2014년 상반기 판매 수익이 3조2200만유로로 전년(3조4100만유로) 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구리 가격의 하락과 환율이 실적 감소의 주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실적 부진에 CEO가 교체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수전 참여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황윤주 기자 hyj@

공시 돋보기

크루셜텍, 화웨이에 BTP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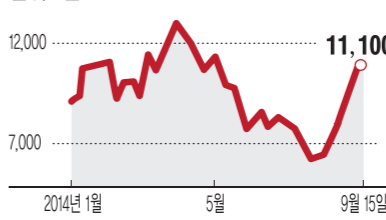
(지문인식모듈)

모바일 입력 솔루션 전문기업 크루셜텍은 세계 최대 통신 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의 광대역 LTE-A 스마트폰 '어센트 메이트7'에 지문인식 솔루션을 납품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스마트폰 업계에서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화웨이가 삼성·애플에 이어 스마트폰 전략 모델에 지문인식을 기본기능으로 탑재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앞서 화웨이는 IFA 2014에서 어센트 메이트7의 핵심 기능으로 날렵한 7.9mm 바다에 싱글터치 지문기술을 강조한 바 있다.

크루셜텍 관계자는 "화웨이 제품 가운데 첫 지문인식 탑재 전략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할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진영 최초로 에어리어(Area) 타입이 탑재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문인식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후면에 장착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6인치 풀HD(1080p) 디스플레이·1300만 화소 후면 카메라·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유틸리티 기어 925 프로세서·2?3GB RAM·16?32GB 저장공간·안드로이드 4.4 킷Kat 등을 지원한다"

크루셜텍 주가 추이



고 설명했다. 이어 "화웨이와 같은 글로벌 메이저 회사 핵심 모델에 자사의 지문인식 솔루션이 채택돼 매우 기쁘다"며 "중국의 경우 화웨이 이외에도 다수의 중국 로컬 업체와 공급을 협의 중이며, 하반기 신규 제품 개발 및 공급을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루셜텍의 지문인식 솔루션은 다양한 크기와 색상으로 패키징이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의 홈키·사이드키·후면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 원하는 사양(스와이프 또는 에어리어)으로 공급이 가능해 중국의 지오니아·비보 및 일본 후지쯔와 국내 팬택 등에 탑재된 바 있다. 강인호 기자 kangih@

SW·포털 매출증가... 중장기 수익개선

SP 종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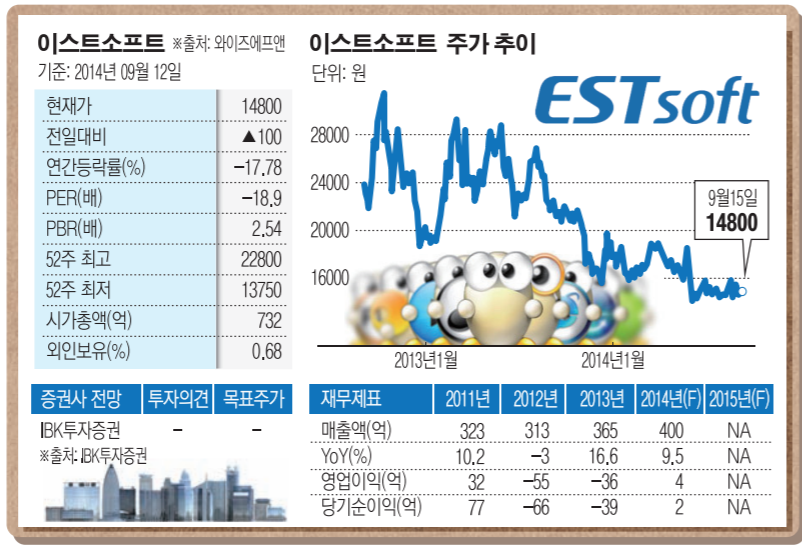
②9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소프트가 소프트웨어와 포털 매출 증가에 힘입어 중장기적인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신버전 출시로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상되고 줌닷컴의 퀴리수 증가와 게임 매출의 본격화 등에 따라 실적 회복세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스트소프트는 알집, 알약, 알뜰바 등 알시리즈로 알려진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다. 알뜰바 7개 제품 중 5개의 점유율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주력 온라인게임으로는 카발온라인이 있다. 주요 매출은 알시리즈 소프트웨어, 카발온라인과 카발2 게임, 줌 포털 등이며, 지난해 매출비중은 게임 41%, 소프트웨어 33%, 포털 27% 등이 차지했다.

2010년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며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성장세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휴대폰 시장의 구도가 하드웨어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되며 무선인터넷 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부각했다. 실적도 호전됐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20.1% 늘어난 292억7600만원, 영업이익은 9.8% 증가한 87억2900만원을 기록했다.

2011년 카발온라인과 알약의 매출 증가, 개발형 포털인 줌닷컴 성장성 기대, 정부의 소프트웨어 육성책에 따른 수혜가 더해지며 연초 1만1950원에 머물던 주가는 연말 3만2050원까지 뛰었다. 매출액은 323억원으로 전년대비 10.24%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63.22% 줄어든 32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감소는 신작 게임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이스트소프트는 2012년부터 적자구조가 이어졌다. 주가도 2012년 2월 3만8400원에서 지난해 연말 1만8200원으로 50% 넘게 떨어졌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16.61% 늘어난 365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은 36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신규 게임 부진, 알시리즈 모바일 리빙딩 과정에서의 공백, 줌닷컴의 더딘 성장에 따른 것이다.

게임 매출은 2012년 156억원으로 2011년 185억원보다 15.68% 줄었고 지난해엔 148억원을 기록했다. 디아블로 3, 블레이드앤소울 등 경쟁작들의 출시로 인해 신작인 카발2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환경 개선이 예상된다. 올해 연말 중국 장유와 제휴를 통한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게임 실적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매출은 2011년 135억원에서 2012년과 지난해 각각 119억원

로 감소했지만 올해 1분기 전년동기대비 26% 늘어난 37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소프트웨어의 모바일 관련 매출이 확대되면서 제휴와 광고 매출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줌닷컴 매출은 2012년 38억원에서 지난해 98억원으로 158% 증가세를 보였다. 검색사이트 활성화 적었던 퀴리수가 늘고 있으며 점유율도 지난해 11월 이후 1%대를 유지하고 있다.

IBK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이스트소프트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9.5% 늘어난 400억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억원과 2억원으로 흑자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소프트웨어와 포털 매출 증가가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게임의 해외 서비스 성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체 특성 상 순이익비율(BEP) 달성 이후에는 수익 개선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정경 기자 jcha@



신한금융투자 ELS 13종 모집

신한금융투자는 다양한 수익구조를 지닌 ELS 등 13종의 상품을 15일부터 19일까지 판매한다. 17일부터 19일까지 판매하는 'ELS9416호'는 조기상환형 스탠다드 구조이며 KOSPI200, HSCEI, 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조기상환 평가일에 각 기초자산의 총가가 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18개월), 80%(24개월), 75% (30개월) 이상인 경우 연 5.40%의 수익금과 원금이 상환된다.



YG, 루이비통서 820억 투자유치

와이지엔터테인먼트가 세계적인 명품그룹 LVMH(루이비통모에네시)로부터 8000만달러(약 82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15일 와이엔터는 지난 13일 오후 싱가포르 리츠칼튼호텔에서 LVMH그룹 계열 사모펀드인 L캐피탈 아시아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와이엔터는 지난달 20일 운영자금 610억5000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L캐피탈 아시아를 대상으로 우선주 135만9688주를 발행하는 제3차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 후 1년 후부터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다. 전환가격은 최초 발행가와 동일하지만 희석방지기(anti-dilution)에 따라 전환가격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이와함께 L캐피탈 아시아는 최대주인 양현석 와이엔터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50만 3588주를 203억5000만원 규모에 매수할 예정이다. 주당 취득금액은 4만410원이다.

와이지엔터 측은 "음악과 패션 화장품 등 양사의 주력 사업이 결합돼 새로운 잠재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캐피탈 아시아는 LVMH그룹 계열 사모펀드로 지난 2009년 설립됐다.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유망한 브랜드에 투자하고 있다. 운용 자산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 6억 3700만달러에서 올해 8월 10억5000만달러까지 증가했다.

L캐피탈 아시아가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미경 기자 mjkg@

'전기차 콘덴서' 뉴인텍, 세계진출 시동

글로벌 기업과 공급 협의중

뉴인텍이 친환경 자동차용 콘덴서 공급업체를 글로벌 전기차업체로 넓힐 전망이다.

15일 뉴인텍 관계자는 "인버터 제조업체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업체에 콘덴서를 공급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등록이 곧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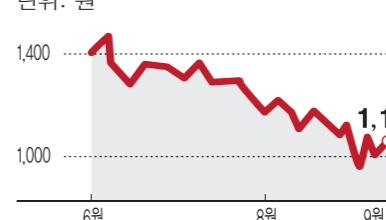
이 회사는 2014년형 전기차 소울 및 LF 하이브리드 모델차량에 인버터용 콘덴서를 단독 공급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과의 공급 계약도 조만간 성사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기아차 소울은 지난달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 기간 탑승하며 이름을 널리 알렸다.

서성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교황이 방문한 기아차 소울이 이동한 것이 전 세계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며 이슈가 됐다"며 "교황의 좋은 이미지가 소울의 후광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1-7월 소울의 글로벌 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24.9% 급증한 11만8692대"라며 "판매량은 기존 연간 목표인 19만대를 뛰어넘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소울에 인버터용 콘덴서를 공급하는 뉴인텍도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 뉴인텍은 지난 2008년 11월 현대모비

뉴인텍 주가 추이



스 협력업체로 등록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 모델에 부품 공급을 하기 위한 설비증설을 완료하고 현재 YF하이브리드, K5하이브리드차종에 인버터용 콘덴서를 단독 공급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최초 고속전기차인 블루온 및 전기버스인 일렉시티 개발사업에 참여했고, 2011년말 전기차 양산모델인 레이 차종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2012년에는 수소 연료전지차용 콘덴서를 공급하는 업체로 단독 선정돼 현재 양산 및 공급 중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의 1.5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매서운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세 차례에 걸쳐 전 환경 자동차 장려 정책을 내놓으면서 중국이 전기차 시장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송영록 기자 syr@

모두투어, 자유투어 인수... 본입찰 단독 참여

모두투어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자유투어를 인수한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모두투어 매각을 위한 본입찰 결과, 모두투어가 단독으로 참여했다. 당초 자유투어 인수의향서(LOI)를 낸 흥풍계 투자회사는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자유투어는 법원에 모두투어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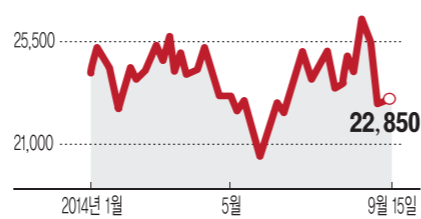
IB업계 관계자는 "모두투어의 인수 의지가 강한 만큼 본입찰 없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투어는 자유투어에 대한 경영 정상

화를 지원하며 인수 수순을 밟아왔다. 자유투어에 별도의 지분 부지는 없었지만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당시 모두투어 상품 기획본부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일곱 명의 이사 중 네 명을 모두투어 측 인물로 선임하는 등 자유투어 경영에 참여했다.

시장에서는 모두투어가 자유투어 인수할 경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모두투어는 고가 패키지·하니온 여행을 맡고 자유투어에 중저가 여행상품 판매를 맡겨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설립된 자유투어는 한때 업계 5위권에 드는 대형 여행사였으나 매출감소

모두투어 주가 추이



와 적자누적 등 경영난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자유투어는 지난해 말 회사 정상화를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M&A 추진하기도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미정 기자 lmj@



Made in DIOS

관리받는 물, 믿고 마시는 물이 냉장고의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냉장고보다 더 필요한 냉장고, 디오스 얼음 정수기냉장고



깨끗하게 | 2달마다 방문 관리하는 헬스케어 매니저의 전기분해 살균
완벽하게 | 3단계 안심정수필터와 세균격정없는 폴 스테인리스 저수조
보다 넓게 | 정수기가 하나로 합쳐져 더 넓고 여유로워지는 주방 공간

간편하게 | 언제나 준비된 신선한 얼음과 필요한 만큼 조절하는 정량급수
감각있게 | 고급스러운 메탈이 더해져 심플하고 모던한 프리미엄 디자인
편리하게 | 여자들을 배려하여 설계된 쓸수록 편리한 상냉장 하냉동 구조

